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한국과 독일의 온라인 기사에 나타난 담화 구성의 비교 연구

- 코로나19 기사를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독어전공

장 예 진

한국과 독일의 온라인 기사에 나타난 담화 구성의 비교 연구

- 코로나19 기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성 상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독어전공

장 예 진

장예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데 최근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이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나 요즘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 더욱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만큼 여러 미디어 중에서도 온라인 기사를 통해 위험 보도를 접하는 비율이 높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사는 인터넷 포털이라는 뉴스 구독 플랫폼에서 기사제목을 통해 드러난다는 특징으로 인해 다른 매체들과는 상이한 담화 형성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담화가 독일과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 각각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독일과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접종률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독일과 한국 각각에서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 관점은 우리가 낯선 것을 바라볼 때 창문의 역할을 하는 매체, 즉 여기서는 온라인 기사에 투영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관점의 차이가 코로나19에 대한 담화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가정 하에 코로나19 담화 형성의 양상을 코로나19 온라인 기사에 사용된 어휘와 문법을 중심으로 한 언어적 표현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다. 이때 두 국가의 담화의 형성 양상을 비교하기 위한 언어 분석의 방법으로 담화를 하나의 사회적 관행으로 간주하는 비판적 담화분석을 사용한다. 매체가 만들어내는 담화를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비판적 담화분석은 온라인 기사라는 매체가 코로나19 담화를 형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번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판적 담화분석을 통해 도출된 독일과 한국 온라인 기사의 코로나19 담화 형성의 양상을 바탕으로 그 다음으로는 독일과 한국 사이에 담화 분석을 통해 발견해낼 수 있는 문화적인 차이가 존

재하는지를 알아보고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연구에서 밝혀본다.

독일과 한국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를 어휘적 측면에서 분석 및 비교해보았을 때 독일에서는 코로나19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한국에서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독일과 한국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에서는 차별담화도 형성되었는데 독일에서는 차별의 대상이 아시아와 아시아인인 반면 한국에서는 중국과 중국인이었던 점에서 두 나라가 다른 담화 양상을 보였다. 두 나라에서의 코로나19 담화 형성이 어휘적 차원에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문법적 차원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담화 양상에 차이점을 가져다주는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독일의 온라인 기사에서는 공신력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을 인용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때 많은 경우 정보를 문두에 두고 정보 제공자는 문미에 두는 문장 구조를 취하였다. 이는 문장 내에서 어순이 자유로운 독일어의 특징을 반영한 문장 구조인 한편,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정보가 문두에 등장하고 주어 역할을 하는 정보 제공자가 문미에 나타나는 문장 구조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독일 온라인 기사에서는 정보 제공자보다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강조함으로써 정보성에 비중을 두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어 역시 독일어와 마찬가지로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는 대부분 정보보다는 정보 제공자 즉, 공신력을 가지는 개인이나 기관을 문두에 위치시킴으로써 정보 자체보다는 정보의 신뢰도에 무게를 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온라인 기사에서는 주로 행위 주체를 드러내는 반면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 행위의 주체를 숨기고 있다. 독일의 온라인 기사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드러냄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숨김으로써 담화 생성자 자신의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관점, 태도 그리고 감정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독일과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 드러나는 코로나19 담화 양상의 차이는 양국의 문화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어휘적인 측면에서의 코로나19 담화 분석에서 독일은 코로나19에 대한 적대감을 그리고 한국은 공포심을 각각 드러냈는데, 독일에서의 코로나19 담화는 담화 수용자로 하여금 코로나19를 맞서 싸워야 하는 상대로 인식하게 하고 코로나19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에서는 독일과는 반대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어떠한 행동을 암시하기보다는 새로운 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에 안주하게 하는 담화를 형성한다. 이는 결국 독일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적극성의 문화와 한국의 수동성의 문화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법적 차원에서 나타난 문장의 처음에 주제화 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치시키는 경향성의 차이는 사회 구조적으로 Bottom-up 구조인 독일과 Top-down 구조인 한국의 차이와도 일치한다. 독일의 Bottom-up 사회 구조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한국의 Top-down 사회 구조에서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독일과 한국의 차이는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및 백신 접종과 같은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독일과 한국의 반응에서도 차이를 보였고 이는 가시적으로 독일과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에서도 확연하게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 사회인 독일과 집단주의 사회인 한국의 문화 차이는 코로나19 담화를 형성하는 문법 구조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독일과 한국의 담화 구성의 차이와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에도 여러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기사를 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독일어 학습자는 어휘와 문법의 차원에서 보다 실제적인 독일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독일어 학습자로 하여금 독일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고 독일어에 대해 느끼는 높은 진입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온라인 기사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게 되면 같은 이슈에 대해 독일과 한국의 담화 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같은 이슈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을 습득하게 된다. 독일어 학습자들은 담화 구성을 비교하는 수업을 통해 지금까지 사전적으로 알아왔던 독일 문화와는 또 다른 독일 문화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독일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실제 독일 지역사정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독일의 문화를 담화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 습득하게 됨으로써 나아가서는 독일어 학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주요어 : 코로나19, 비판적 담화분석, 비교 연구, 독일과 한국의 코로나19 담화, 담화 구조 비교, 담화에서의 언어 사용
학 번 : 2017-29542

목 차

1. 서론 ····· 1

2. 매체 담화 분석 틀: 비판적 담화분석 ····· 3
2.1. 비판적 담화분석 ····· 4
2.2. 온라인 기사의 담화적 특징 ····· 7
2.3. 선행연구 ····· 10

3. 비판적 담화분석의 적용 ····· 15
3.1. 독일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 분석 ····· 16
3.1.1. 어휘적 차원 ····· 17
3.1.2. 문법적 차원 ····· 23
3.2. 한국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 분석 ····· 26
3.2.1. 어휘적 차원 ····· 26
3.2.2. 문법적 차원 ····· 34

4. 독일과 한국의 담화 구성 비교 ····· 39
4.1. 어휘적 차원 ····· 40
4.1.1. 공포·불안감을 야기하는 어휘 비교 ····· 40
4.1.2. 질병 개념화 어휘 비교 ····· 43
4.2. 문법적 차원 ····· 57
4.2.1. 문두성과 주제화 방식 비교 ····· 57
4.2.2. 행위의 주체의 생략 및 문장 구조 비교 ····· 60
4.3. 텍스트 구조 차원 ····· 66
4.4. 문화적 관점에서의 코로나19 담화 구성 비교 ····· 71

4.5.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의 시사점 ····· 80

5. 결론 ····· 84

참고문헌 ····· 85

Zusammenfassung ····· 97

표 목 차

[표 1] ····· 46-47
[표 2] ····· 53
[표 3] ····· 67
[표 4] ····· 71

그 림 목 차

[그림 1] ····· 9
[그림 2-1] ····· 13
[그림 2-2] ····· 13
[그림 3-1] ····· 14
[그림 3-2] ····· 14
[그림 4] ····· 19
[그림 5] ····· 48
[그림 6] ····· 50
[그림 7] ····· 77
[그림 8-1] ····· 78
[그림 8-2] ····· 78
[그림 9] ····· 79

도 식 목 차

[도식 1] ····· 56
[도식 2] ····· 57

1. 서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미디어 Medien를 통해서 접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이하 코로나19)과 같이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특정 위험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개인들이 위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미디어와 같은 외부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박주현 2020, 45)이라 볼 수 있다. 그만큼 위험 보도와 관련하여 미디어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더욱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기사와 같은 미디어 텍스트는 오늘날 담화 형성 Diskursformationen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조국현 2020).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어떠한 언어적 표현으로 대중에게 전달되는지 살펴본다. 보다 더 자세하게는 독일과 한국의 언론이 생성하는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기사의 언어 표현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각 나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떠한 담화 구조 Diskursstruktur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만약 담화 구조의 양상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를 문화적인 이유와 결부시킬 수 있을지도 살펴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 기사를 하나의 미디어 언어로 간주하고 응용언어학의 하위 분야인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 표현을 비판적으로 분석·비교한다.

2019년 12월 이래로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관련 연구도 여러 학문과 연계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지금까지의 코로나19 기사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국내의 보도행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며 결론을 짓고 있다. 우리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위험과 관련하여서는 물론 감염병 보도준칙에 따라 보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메르스나 사스 때에도 논의가 되었던 위험과 관련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판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일종의 보도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보도의 형태는 다른 사회 내에서의 보도 형태와의 비교를 통해 오히려 보다 객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국가 간 언론 기사의 보도 방식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교 및 분석한다.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독일과 한국의 언론 보도 방식을 분석·비교한다. 비교 대상이 될 독일과 한국의 언론 보도는 2020년 1월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기사로 설정한다. 코로나19 온라인 기사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두 나라 간의 비교를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코로나19 관련 위험 보도가 한국과 독일에서는 어떠한 언어적 표현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b. 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보도의 차이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c. 이 차이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가지는가?

2021년 10월 현재 근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21세기 초유의 전염병인 코로나19의 보도 행태에 있어 언어적 표현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기 위해 이 연구의 2장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서 '비판적 담화분석 kritische Diskursanlyse'을 제시한다. 그리고 비판적 담화분석이 왜 온라인 기사의 언어 표현 분석에 적절한지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비판적 담화분석을 통한 온라인 기사의 비교 분석이 문화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본다. 3장에서는 비판적 담화분석을 적용하여 독일과 한국의 온라인 기사를 각각 분석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분석을 시행하여 온라인 기사의 담화 형성에 있어 두 국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분석 및 비교의 결과가 한국에서의 독일어 수업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며 논의를 끝맺도록 한다.

2. 매체 담화 분석 틀: 비판적 담화분석

담화 Diskurs[1)]란 의사소통 속에 담긴 '견해나 태도'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단지 언어 표현을 통한 소통을 뜻하지 않는다. 담화는 크게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담화분석에 있어 둘의 구분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구어 담화 상황에서는 손짓,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들을 통해서도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청자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며 화자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글로 된 담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언어적인 표현이 불가능하고 독자와의 상호작용도 즉각적이지 않다. 이렇듯 각각의 담화들이 가지는 특징들은 언어로 표시되는 텍스트들과 함께 어우러져 언어로 표현되는 의미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언어적 표현 그 이상의 화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을 담화분석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1990년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담화를 하나의 사회적 관행으로 간주하는 비판적 담화분석은 주로 언론 매체나 광고, 선전 등에서 발생하는 언어 사용 Sprachgebrauch을 힘, 권력, 사회적 불평등[2)]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비판적 담화이론에서는 매체를 '네 번째 권력 vierte Gewalt'으로서 "담화에 영향을 끼치며 이 영향력이 미디어 소비자들의 생각이나 행동에도 미치는(Reisigl 2009, 50에서 재인용)[3)]"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담

---

1) 독일어로 Diskurs, 영어로는 discourse로 표현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담론 내지는 담화로 혼용하여 번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담론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언어학 분야에서는 담화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논의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Diskurs/Discourse에 해당하는 의미는 모두 담화로 그 표현을 통일하며 직접 인용이나 인용의 번역 등에서 담론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담화로 바꾸어 표기하도록 한다.

2) 담화에서 힘, 권력 등의 개념은 담화에 담긴 의도성의 결과로 얻게 되는 행위의 통제를 의미한다.

화는 '비판적' 시각에서 언어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1. 비판적 담화분석

Peter Garrett과 Allan Bell에 따르면 "비판적 담화이론에 특화된 저널인 *Discourse and Society*에 게재된 1998년까지의 논문의 40%가 매체 자료를 다루었고 오늘날까지도 비판적 담화연구는 매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ebd., 43에서 재인용)[4]"고 한다. 비판적 담화분석이 분석의 주 대상을 이와 같이 매체 자료에 의존하는 이유는 대중매체 Massenmedien는 담화를 생성할 때 그 목적이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권력이나 이념 등을 담화 속에 숨겨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담화 수신자들은 언어적 표현으로 대변되는 외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당 표현이 가진 이면의 의미에 대해서는 큰 고려를 하지 않거나 숨겨진 의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는 대중매체의 담화적 행태가 어떠한 사회 안에서 이미 사회적 관행이 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즉 미디어 담화 medialer Diskurs/mediale Diskurse/Mediendiskurs가 이미 관습화되어서 담화 수신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진 미디어 담화는 담화 수신자들이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불평등, 힘, 권력, 차별 등의 관계를 만들어 내거나 유지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비판적 담화분석은 Theo van Leeuwen의 지적처럼 "담화에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깊숙이

---

3) "...(중략) als 'vierte Gewalt', die einen enormen Einfluss auf 'herrschende Diskurse' und damit auf das Denken und Handeln der MedienkonsumentInnen ausübe, ...(중략)."

4) "An die 40 Prozent der Artikel, die bis 1998 in der auf Kritische Diskursanalyse spezialisierten Zeitschrift *Discourse and Society* publiziert wurden, beschäftigten sich laut Garrett und Bell mit Mediendaten. [...] Dieser empirische Medienbezug steht in der kritischen Diskursforschung bis heute an erster Stelle."

파고들어 이제는 당연시되는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정체를 벗겨내어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서경희/김규현 2019, 105)"을 목적으로 담화를 대중적으로 생산해내는 미디어를 주 대상으로 하여 담화 생성자의 의도를 분석한다.

그렇다면 비판적 담화분석을 통해 어떻게 담화 속에서의 문화적 요소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가? Teun A. van Dijk는 담화를 '인식 Kognition'과 '사회 Gesellschaft'와 함께 어우러져서 생성되는 복합적인 의사소통적 사건으로 이해하였다(ebd., 46에서 재인용). Norman Fairclough 역시 담화를 "사회적인 관습에 대해 규정되고 사회적으로 본질적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제로 정의된다(ebd., 47에서 재인용)[5]"고 하였다. 그만큼 담화는 사회와 연관 있다. 따라서 앞서 정의했던 담화에 담긴 '견해와 태도' 역시 '어떠한 담화가 생성되는 한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담화 내지는 담화 생성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주장·설득·논쟁 등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사회는 '문화 Kultur'와 필수불가결의 관계이다. 문화는 사회라는 집단 없이는 형성되지 않으며 사회는 문화를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담화 분석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사회학과 문화 연구 등과 함께 행해지고 있다. Fairclough 역시 담화의 과정이 "'사회적 맥락 sozialer Kontext'에 삽입되어 있으며 '사회적인 혹은 사회문화적인 실천 soziale oder soziokulturelle Praxis'와 연관되어 있음(ebd.에서 재인용)[6]"을 설명하며 담화의 사회와 문화와의 긴밀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담화를 통해 사회 그리고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는

---

5) "Norman Fairclough bestimmt 'Diskurs' als über gesellschaftliche Konventionen geregelte, sozial konstitutive und sozial konstituierte Praxis."

6) "Diese Prozesse seien drittens in den sozialen 'Kontext' eingebettet bzw. auf die 'soziale oder soziokulturelle Praxis' bezogen, (중략)."

보도 담화이다. 보도 담화는 언론 담화라고도 하며[7] 언론 매체를 통해서 생성되는 담화를 의미한다. 보도 담화 중에서도 비판적 담화분석의 대상이 되는 상당수가 정치 관련 담화인데 정치 담화의 비판적 분석은 대부분 보수와 진보 언론매체로 대표되는 언론사를 선정하여 각각 언론사들의 정치 담화 생성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를 협의의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언론사 또한 하나의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사가 가지는 이념은 그 언론사 고유의 문화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언론사가 생성해내는 담화에 그 언론사의 이념이 숨겨져 있다면 이에 대한 분석은 그 언론사의 문화를 밝혀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언론사 간 담화 생성 방식의 비교 및 분석은 비교 대상이 되는 언론사들의 문화적 유사점 내지는 차이점을 비교하는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다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어떠한 사회 집단을 하나의 국가라고 간주해보자. 한 나라의 내부에서 형성되는 담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형성되는 담화와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특징을 가진다는 발견이 가능하다면 이는 한 국가 고유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험과 관련한 보도 담화는 특히나 국가 차원에서 담화 구성의 문화적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위험의 개념이 과거에는 단지 생존여부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현재는 생존 자체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문명성·경제성·문화성 등의 여러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삶의 질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위험이 더 이상 객관적인 정보로만 이해되지 않고 사회문화적으로 해석(송해룡 2017)[8]됨에 따라 위험과 관련한 보도 담화 역시 사회적 맥

7)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보도 담화와 언론 담화 두 가지 표기를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8) 이에 대해 송해룡(2017)은 원자력 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예로 든다. 이들에게는 원자력 시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기술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부나 산업을 믿을 수 있을지 신뢰에 대한 위험, 집이나 땅 가치의 하락을 걱정하는 경제적 위험 그리고 위험부담을 져야하는 형평성에 대한 위험이 공존함으로써 객관적인 위험에 추가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험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 단위에서 한 위험 요소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응책 또한 사회 전체에 공유된다. 이처럼 위험 담화 Risikodiskurs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위험에 관한 보도 담화 역시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해석을 통해 위험을 대하고 반응하는 그 사회의 문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위험 보도 담화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의 분석 결과는 다른 나라의 위험 보도 담화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각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발견해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 담화 속 숨겨진 사회적 맥락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에서 보도 담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는 담화 형성에 있어서 권력을 보다 현재에 맞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회에서 보도 담화가 가장 쉽고 빠르게 형성되는 대중매체는 스마트 기기와 결합한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로는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의 결합으로 현재의 보도 담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온라인 기사의 담화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2.2. 온라인 기사의 담화적 특징

언론 담화를 매체로 분류할 경우 전통적으로는 신문, TV, 라디오 등이 있다. 20세기 말부터는 인터넷이라는 대중매체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하루 이상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드물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가장 대중적인 대중매체로 자리매김하였다[9].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이용률은 높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9) e-나라지표(index.go.kr)의 통계에 따르면 실제 통계상으로도 한국에서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에 44.7%에 불과했는데 10년 후인 2010년에는 77.8%가 되었고 또 다시 10년 후인 2020년에는 91.9%로, 현재는 10명 중 9명이 인터넷을 이용할 정도로 우리는 인터넷 매체와 친숙하다.

다[10]. 이와 같은 범세계적인 인터넷에 대한 수요는 대중매체로써의 인터넷의 높은 위상을 반영한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높아진 인터넷 이용률의 원인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11].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률은 뉴스 구독 행태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종이신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이 2011년 44.6%에서 2020년에는 10.2%까지 떨어질 동안 모바일 기기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2011년 19.5%에서 2020년 77.9%(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59)로 급격한 상승을 이루어냈다. 이처럼 높아진 인터넷 이용률과 모바일 기기 보급률의 동반 성장은 종이신문의 구독률 하락[12]과 이에 반비례하여 온라인 기사 구독률의 상승을 초래한 것이다.

지금의 사회에서 온라인 뉴스의 구독률이 높은 까닭으로는 첫째, 스마트 기기의 간편성과 이동성에 있다. 스마트 기기는 공간을 적게 필요로 해 불편함 없이 기사 구독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기기는 손에 쥘 수 있는 크기기 때문에 이동하며 기사를 읽기 유용하다. 두 번째로 스마트 기기는 한 눈에 사회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기사 구독은 주로 인터넷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모바일에서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74.9%(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61)를 차지하고 있다. 모바일의 인터넷 포털에는 여러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들이 다양하게 집중되어 있는데 최대한 많은 기사를 보여주기 위해 기사의 헤드라인만 노출되어 있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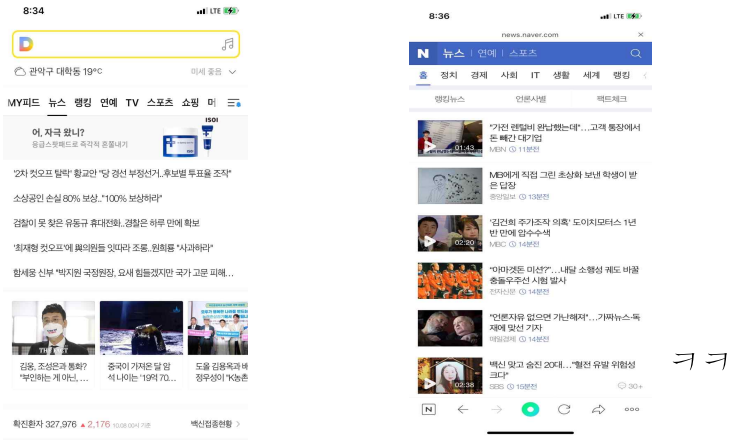
---

10) 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개월간의 인터넷 이용률은 아이슬란드가 99.5%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96.5% 그리고 독일은 94.3%이다.

11) 실제로 2010년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급률이 각 10.6%, 0.6%이었던 것에 반해 2020년에는 각 91.0%와 14.6%로 각 약 9배 그리고 20배 이상 상승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터넷 이용률 또한 2010년에는 77.8%에서 2020년에는 91.9%로 상승하였다.

12) 2021년 3월 17일에 발행된 한 온라인 기사에서는 종이신문 열독률이 1996년 85.2%에서 2019년에는 6.4%까지 떨어진 점을 지적하고 있다(http://www.mediaboo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56).

우가 많다. 스마트 기기의 인터넷 포털에서는 그 날의 주요 이슈를 기사 제목으로만 다루고 있어 비교적 이슈의 분포가 고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즉 모바일에서 인터넷 포털을 통한 기사 구독은 하루의 주요 이슈를 더 많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 포털을 통한 기사 구독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제공된 수많은 기사제목 중에서 독자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사를 골라 읽을 수도 있다.



[그림 1] 모바일 상에서 한국의 대표 인터넷 포털인
다음(왼쪽)의 포털 홈 화면과 네이버(오른쪽)의 뉴스 홈 화면

이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통한 뉴스 구독률의 상승 및 뉴스 구독의 장점들로 인해 온라인 기사는 종이신문 그리고 그 외 언론 매체와는 또 다른 차별적인 담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종이신문을 구독하던 과거의 보도 경쟁은 언론사 간의 종이신문의 판매부수로 이어지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기사를 구독하는 요즘은 언론사 간의 보도 경쟁이 표면적이지 않다.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인터넷 포털에서는 더 이상 언론사명이 언급되지 않거나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기사도 종이 기사와 마찬가지로 언론사 간의 보도 경쟁이지만 경쟁의 바로미터는 판매부수가 아닌 기사제목의 클릭 혹은 터치로 인한 기사내용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이라는 뉴스

구독 플랫폼에서의 보도 담화 경쟁은 포털에서 가장 가시적인 기사제목[13]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온라인 기사로 하여금 다른 매체들과는 상이한 담화 형성 구조를 가지게 하였다.

2.3. 선행연구

기존의 언론 보도와 관련한 언어학적 연구들은 주로 기사 속에 담긴 언론사의 이념성 반영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이후로 의미망 분석, 프레이밍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보도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빅데이터, 코퍼스 등의 새로운 그리고 계량적 연구 방법을 접목하여 분석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보다 높이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 관련 보도에서도 연구 방법 및 방향은 이와 다르지 않다. 2020년부터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최근의 위험 이슈인 코로나19 보도에 관한 언어적 분석 역시 마찬가지이다. 표시영(2020)의 KBS <뉴스 9>의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분석, 박주현(2020)의 언론의 이념성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함승경/김혜정/김영욱(2021)의 빅데이터를 통한 코로나19 언론 보도의 경향 분석 등 현재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의미망 분석, 빅데이터, 통계 등 다양한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주로 언어 사용이나 기사 작법 그리고 보도 방식 등을 다루며 언론의 역할에 대한 반성적 제언에 그칠 뿐 위험 보도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언어적 표현을 사회문화적인 특성으로 결부시켜 분석하는 연구는 희박했다.

그 중 코로나19 기사에 내재되어 있는 담화를 분석한 연구인 조국현(2020)의 『독일 온라인신문의 기사제목과 리드에 담긴 '코로나 담화'의 분석』은 기사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기사제목과 리드만을 따로 분

13) 헤드라인(Headline)이라고도 칭하므로 이 논의에서는 기사제목, 헤드라인 두 명칭을 병용하도록 한다.

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코로나19의 발생,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사의 세 가지 커다란 주제를 담화분석을 통해 각 주제에 대한 핵심 내용을 찾는 한편 해당 담화를 구현하는 언어의 특징을 찾아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기사가 가지는 담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독일의 온라인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점은 유의미하나 이 연구는 담화분석이라는 연구방법 자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온라인 기사 안에서 형성되는 담화와 그것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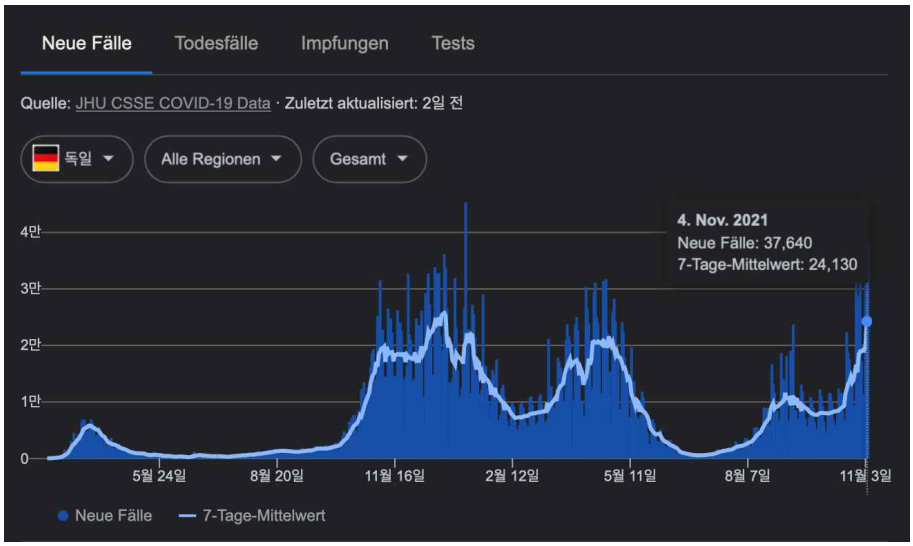
한국과 외국의 코로나19 보도를 비판적 담화분석으로 비교 연구한 신문적/왕림/김진해(2020)의 『한·중 코로나19 관련 신문기사의 비판적 담화 분석』은 우선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한국과 중국의 방역조치가 달랐던 점에서 착안하여 기사 속의 언어 전략을 통해 양국의 방역정책에 대한 경향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의료진'과 '확진자'라는 다소 협소한 두 개념에 대해서만 담화분석을 시행했음에도 두 나라의 기사 안에서 언어적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담화를 분석·비교한다는 점에서 여타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다만 결과로써 나타난 양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근거에 대한 설명의 부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언어 표현의 분석·비교를 통해 두 국가의 코로나19 언론 보도에서 사용된 언어 표현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전의 호흡기증후군으로 코로나19 초기에 꾸준히 함께 언급되었던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사스나 메르스와 관련한 언론 보도 연구 역시 언론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위험 보도의 분석이나 프레이밍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진나영과 정정주(2018)의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이 연구는 언론 보도 의미망 분석을 통해 언론이 생산해내는 담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언론 보도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국내 언론 보도와 비교하는 국외의 언론 보도는 28개국의 보도이다. 국내와 국외의 언론 보도가 만들어내는 담화 차이를

단어 사용의 빈도, 중심성, 의미망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이 연구는 위험 보도 담화의 국가 간 비교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외국의 메르스 상황이 한국의 메르스 상황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담화의 생성 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를 위한 대상 국가에 선정에 의구심이 든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는 중동에서 시작된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비교 연구를 위해 선정된 중동 국가의 기사들이 영어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메르스의 발원지이며 메르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중동의 국가들에서의 메르스 보도 담화가 과연 이 연구의 결과처럼 공포를 배제한 “단지 질병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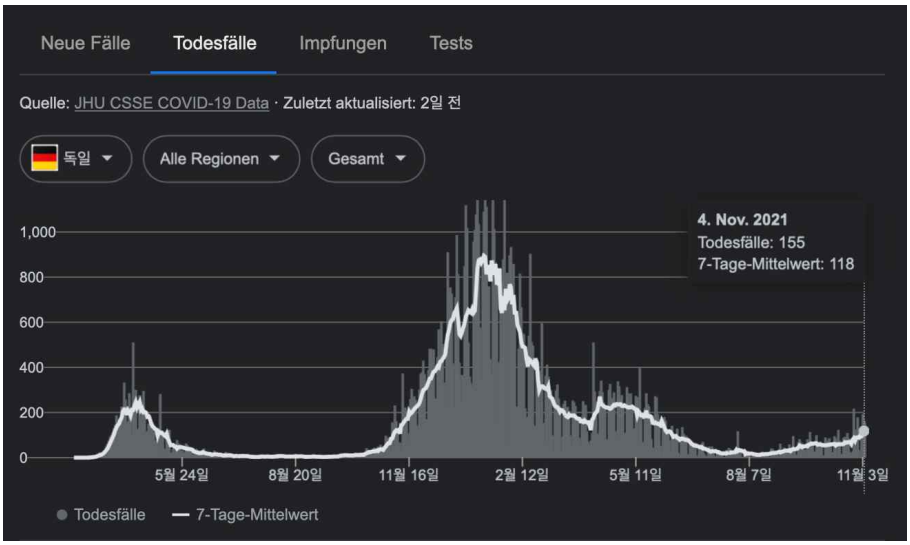
이상 위험 관련 보도와 최근의 코로나19 보도에 사용된 언어 표현 자체의 특징과 이의 사회문화적 담화 형성에의 역할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문적 외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비판적 담화분석을 활용한 코로나19 담화의 국가 간 비교 연구는 사회문화적인 이해의 관점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이후 독일과 한국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를 비판적 담화분석을 활용하여 각각 분석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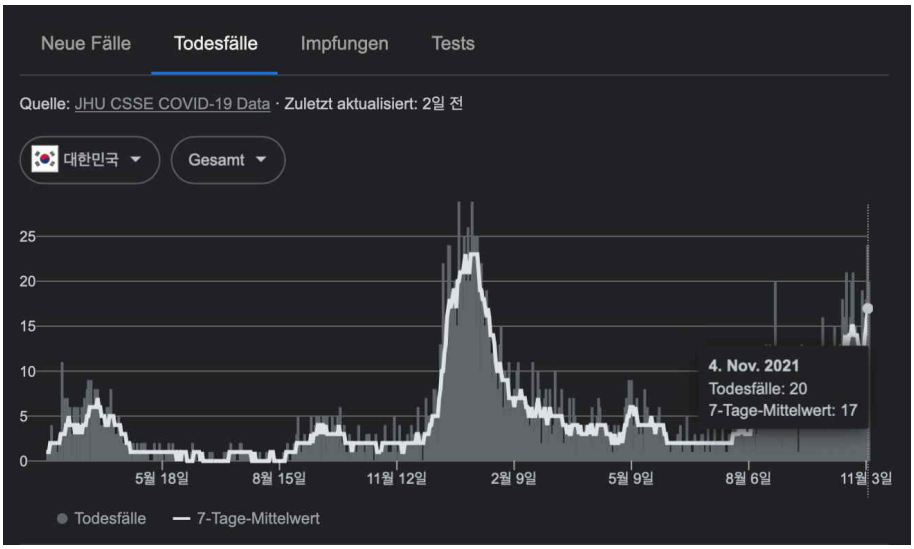
독일과 한국은 2020년 11월 4일을 기준으로 확진자, 사망자 그리고 백신 접종률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2-2] 독일과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수와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14]

14) 양국 모두 2021년 11월 4일 기준 (출처: 구글 검색)





[그림 3-1,3-2] 독일과 한국의 사망자 수와 일주일 평균 사망자 수[15]

이러한 차이가 두 나라의 코로나19 담화와 관련이 있는지 비판적 담화분석을 코로나19라는 최근의 위험 관련 보도 담화에 적용하여 한국과 독일의 보도 담화 구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두 나라의 담화 구성을 비교해보도록 한다.

15) 양국 모두 2021년 11월 4일 기준 (출처: 구글 검색)

3. 비판적 담화분석의 적용

담화를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일종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미디어 담화는 화자와 청자의 비율이 1 대 다수 혹은 다수 대 다수인 의사소통이다. 담화분석이 전달되는 텍스트가 가지는 의사소통적 기능과 효과에 관심을 가진다면 미디어 담화, 그 중에서도 특히 보도 담화에 대한 담화분석의 여지는 무궁무진하다. 왜냐하면 보도 담화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떠한 사안(대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에 대한 담화를 일차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도 담화에서 담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를 담화 생성자 Diskursproduzent(Jäckle 2009, 128)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대중을 담화 수용자 Diskursrezipient(ebd.)라 칭한다.

언론 매체가 특히 위험에 대한 정보를 다룰 때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보다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위험이 더 영향력을 가지는데 위험은 특히 평범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상황을 야기할 만한 소재라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에 관한 정보를 다룰 때 위험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며 대중은 위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중간 전달자 Vermittler로서의 언론 매체의 존재가 분명해진다. 언론 매체의 역할의 중요도는 책임감 내지는 사명감과도 비례하지만 한편으로 정보 제공자로서의 언론 매체의 중요성은 권력과도 연관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새롭거나 낯선 것을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매체는 이를 채워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 매체는 사회 속에서 흔히 정보 제공자가 되어 권력을 지니게 되는데, 지금의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이라는 점과 더불어 발생 당시 누구도 이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더욱이 공신력을 가지는 언론 매체로부터

발신되는 정보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자인 언론 매체가 더 많은 권력을 지니게 되는 구조적 상황이 연출되었다. 특히나 발병부터 관련 수칙들 등 코로나19 관련 이슈 하나하나에 대해 인식을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 매체가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갖게 된 권력은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언론 매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갖게 된 권력으로 코로나19 담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비판적 담화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이 논의에서는 담화의 구성이 문화별로 특징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후로는 독일과 한국의 코로나19 기사의 분석을 통해 두 나라 간의 코로나19 관련 이슈들에 대한 담화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즘의 독자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을 뿐 아니라 현재의 기사 구독 행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온라인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정하되 독일과 한국의 온라인 기사 모두 특정 언론사가 아닌 구글 뉴스를 통해 검색하여 나오는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언어 사용의 분석은 크게 어휘와 문법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3.1. 독일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 분석

언론 매체가 위험 보도 담화를 통해 가지게 되는 권력은 언론 매체로 하여금 위험 보도에 의도성 Intentionalität을 더욱 가미하게 하는데 이 의도성은 보도 내용에서 선택성과 편향성을 통해 주로 드러난다. 선택성과 편향성은 위험 보도에 사용된 어휘, 문체, 내용(요약, 생략 등), 보도 담화 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는 비판적 담화분석의 관점 하에 3.1.절과 3.2.절에서는 코로나19 담화를 다룬 독일과 한국의 온라인 기사를 분석한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여러 이슈들 중에서도 코로나19 발생, 방역수칙 그리고 백신접종 이슈를 다룬 독일과 한국의 온라인 기사를 각각 어휘 그리고 문법이라는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분석하

여 각각의 특징을 파악한다.

3.1.1. 어휘적 차원

단어의 사용은 어떠한 사람의 특정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지는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견해 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비둘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비둘기에 대해 설명해야 할 때 누군가는 단순하게 조류의 일종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평화의 상징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혐오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둘기라는 하나의 객관적인 개념을 개개인마다 다르게 재구성한다 rekonstruieren는 것을 의미한다.

보도 담화 역시 어떠한 객관적인 사건을 담화 생성자가 자신의 관점 및 견해 하에서 재구성해내는 것 Rekonstruierung이라 볼 수 있고 이때의 재구성 Rekonstruktion은 어휘의 사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휘를 통해 담화 생성자의 특정 담화에 대한 태도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코로나19 담화에서 담화 생성자는 어떠한 어휘를 사용하여 코로나19 담화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① 질병의 묘사

새로운 질병의 발생이 인지되는 코로나19 초기 독일의 온라인 기사에서는 질병에 대한 묘사를 주로 ‘mysteriös 불가사의한’ 또는 ‘rätselhaft 수수께끼 같은’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1) **Mysteriös**e Krankheit in China entdeckt (2019.12.31. DW 기사제목)
(2) **Mysteriös**e Lungenkrankheit in China ausgebrochen (2020.1.1. Welt 기사제목)

(2)의 기사에서는 같은 표현 혹은 비슷한 표현을 기사내용에도 반복하여 쓰고 있다.

(3) **Rätselhaft**e Lungenentzündungen werden in China entdeckt. (중략)... Eine **mysteriös**e Lungenkrankheit ist in der zentralchinesischen Metropole Wuhan ausgebrochen. (중략)...(2020.1.1. Welt 기사내용 중)

이와 같은 표현은 물론 기사의 내용에 호응되고 있다.

(4) ...(중략) Laut Experten sei die Ursache gegenwärtig noch unklar, schrieb das Blatt. (중략)...(2019.12.31. DW 기사내용 중)

(5) ...(중략) Das Parteiorgan zitierte Experten, dass die Ursache gegenwärtig noch unklar sei. Es könne nicht gefolgert werden, dass es sich um das Sars-Virus handele, schrieb das Blatt. „Andere schwere Lungenentzündungen sind eher wahrscheinlich." (중략)...(2020.1.1. Welt 기사내용 중)

기사내용을 통해 살펴본 새로운 질병이 '수수께끼 같은' 이유는 아직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사제목을 통해 드러나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인식은 '원인'에 대한 언급이 결여된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원인'이라는 단어가 상실된 'mysteriös'와 'rätselhaft'라는 표현만을 사용하는 것은 담화 수용자로 하여금 질병의 어떤 부분에 대해 알 수 없는지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낳게 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닌 숨겨진 의미를 통해 담화 생성자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uden에서는 mysteriös의 동의어로써 'dunkel(어두운)', 'geheim[nisvoll](비밀[이 많은])', 'hintergründig(배후가 있는, 흑막의)'와 같은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 'rätselhaft'는 'doppeldeutig

(두 가지로 해석되는, 중의적인; 모호한)' 그리고 그와 같은 뜻을 가진 'doppelsinnig(두 가지 뜻이 있는; 애매한)'과 함께 'dunkel(어두운)' 등의 단어를 동의어로 두고 있다. 또한 Duden에 따르면 'rätselhaft'라는 단어는 주로 'fremd(외래의, 남의, 미지의)', 'Krankheit(질병)', 'Todesfall (사망(사건))', 'Tod(죽음)', 'Mord(살인)'와 같은 단어들과 연어 관계를 이룬다.

[그림 4] 'rätselhaft'와 연어 관계인 단어들[16]

이와 같이 '원인'에 대한 언급이 부재한 모호한 표현은 새로운 질병에 대한 담화 생성자의 태도를 반영하여 질병을 보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도록 한다.

② 질병 표기

독일 온라인 기사는 새로운 질병이 2020년 1월 9일 WHO에 의해

16) 출처: duden.de (검색어: 'rätselhaft')

‘신종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라 명명되기 전 이 질병을 ‘Lungenkrankheit 폐병, 폐결핵’ ‘Lungenseuche 폐역’, ‘Lungenentzündung 폐렴’, ‘Lungen-erkrankung 폐질환’ 등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6) Fieber, Atemprobleme: Eine bislang unbekannte **Lungenkrankheit** ist in der zentralchinesischen Metropole Wuhan ausgebrochen. (중략)... (2019.12.31. DW 리드 중)

(7) 44 Menschen an mysteriöser **Lungenentzündung** erkrankt (2020.1.4. Süddeutsche Zeitung 기사제목)

(8) In der Region um Wuhan weckt die Situation unangenehme Erinnerungen: Niemand weiß, was hinter den Dutzenden Fällen von **Lungenerkrankungen** steckt. (중략)...(2020.1.4. Süddeutsche Zeitung 리드 중)

(9) ...(중략) **Pneumonien** können durch eine größere Anzahl von Bakterien, Viren, Pilzen oder Giften ausgelöst werden. ...(중략)...(2020.1.4. Süddeutsche Zeitung 기사내용 중)

독일 언론에서 선택한 이와 같은 표현은 새로운 질병의 증상이 폐렴에 걸렸을 때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온라인 기사의 질병에 대한 어휘의 선택은 새로운 질병의 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담화 수용자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보편적인 어휘를 선택하면서도 정보 제공의 목적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③ 질병의 개념화

은유 Metapher는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준다(Schwarz-Friesel 2015).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전염병과 관련한 보도 담화에서는 담화 수용자가 질병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유를 사용하곤 한다. Bernd Heimerl 역시 오늘날

의 바이러스를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침입자”로 표현한다(Heimerl 2020)[17]. 이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바이러스를 은유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19 보도 담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10) „**Schlachtfeld**“ Wuhan (2020.1.23. Welt 기사제목)

(11) Ganz in der Nähe des Marktes in Wuhan befindet sich der **verkehrsreichste Hochgeschwindigkeitsbahnhof** von Zentralchina, ...(중략)... daneben **Hochhäuser mit topmodernen Appartements**. ...(중략)... Doch **der Schaden** ist angerichtet. Die Welt hat Angst vor einer neuen Pandemie, und **Wuhan muss sich nun**, wie die Medien des chinesischen Regimes es nannten, **in „ein Schlachtfeld“ verwandeln, wenn man nicht will, dass sich das Virus weiter ausbreitet**. (2020.1.23. Welt 기사내용 중)

(10)은 2020년 1월 23일 Welt에서 발행된 기사의 제목이고 (11)는 (10)의 기사제목에 해당하는 기사내용이다. 이 기사가 발행된 시점에 코로나19 발생지로 알려진 우한에서는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다. (10)의 기사제목은 중국 정부에 의해 항공, 열차 등의 모든 교통을 폐쇄 조치된 우한을 ‘Schlachtfeld(싸움터, 전장)’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우한에 ‘싸움터’라는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담화 수용자로 하여금 싸움으로 인해 폐허가 된 상황이 이미지로 연상되게끔 한다. 그리고 싸움터가 된 우한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11)의 기사내용에서와 같이 ‘verkehrsreichste Hochgeschwindigkeitsbahnhof(교통량

17) “Wenn heute von einem Virus gesprochen wird, meinen wir vor allem stets das eine: einen *Eindringling*, der von einem Organismus, einem Körper Besitz ergreift, (중략)”

이 가장 많은 고속열차정거장)', 'Hochhäuser mit topmodernen Appartements(초현대적인 원룸들이 있는 고층집들)'이라는 표현과 'der Schaden(그림자)', 'ein Schlachtfeld(전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묘사하고 있다.

(12) Coronavirus ist weiter auf dem **Vormarsch** (2020.1.26. DW 기사제목)

(13) ...(중략) Der chinesische Staats- und Parteichef Xi Jinping berief am Samstag in Peking ein Krisentreffen ein. Alle Ebenen von Partei und Regierung müssten **dem Kampf gegen das Coronavirus** höchste Priorität einräumen. (중략)...(2020.1.26. DW 기사내용 중)

2020년 1월 26일에 DW에서 발행된 기사의 제목 (12)에서는 코로나19를 '전진 Vormarsch'하는 군사적 행위에 비유하면서 적이 진군하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12)의 기사내용인 (13)에서는 코로나19를 적으로 간주하면서(gegen das Coronavirus) 싸워야 하는 대상(Kampf)으로 묘사하고 있다.

온라인 기사는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개념을 영상을 통한 이미지화로 담화 수용자에게 그 개념을 쉽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언어를 활용하여 질병을 개념화 Konzeptualisierung하는 방식을 취한다. 위의 독일의 온라인 기사 역시 전쟁이나 군사적 상황과 관련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코로나19 및 코로나19 제반 상황들을 표현함으로써 코로나19 및 그와 관련한 상황들이 위험하고 긴박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한편 'Schlachtfeld'. 'Vormarsch', 'Kampf'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 총과 칼을 무장한 군사들과 군대, 피 튀기는 장면, 너부러진 시체 등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담화 수용자들로 하여금 코로나19에 대한 경고를 넘어선 어떠한 의도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1.2. 문법적 차원

문법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어휘 사용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담화 생성자에 의해 재구성된 특정 담화의 특징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작업이다. 어휘에 비해 직접적인 담화 생성사의 의도 Intention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문법 구조의 분석을 통해 담화 생성자가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 어떠한 내용을 숨기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① 인용 구문의 문두성과 주제화

문두성이란 주제를 문장의 제일 앞에 두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이 문장의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어는 일반적인 간단한 진술문에서 정형동사가 문장의 고정적으로 두 번째에 위치하는 언어로 동사 외의 문장 구성 요소들의 어순은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 문장에서는 동사의 앞자리, 즉 문장의 첫 번째 자리 Vorfeld(이하 전역)에 위치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문두성을 지니게 된다.

(14) **Die erste Infektion** mit dem Coronavirus in Deutschland wurde in Bayern festgestellt. **Ein Mann aus dem Landkreis Starnberg habe sich infiziert**, teilte ein Sprecher des Gesundheitsministeriums in München mit. (중략)...(2020.1.27. DW 기사내용 중)

(14)은 독일에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날의 DW 기사내용 첫 문단의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다. 기사 첫 문장의 시작은 'Die erste Infektion(첫 번째 감염)'으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과 관련한 주제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문두성을 확보한다. 이는 (14)의 기사내용의 제목인 'Erster Coronavirus-Fall in Deutschland bestätigt(독일에서 첫 코로나 사례가 확인되다)'에 호응되기도 한다. (14)의 두 번째 문장은 간접

인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장의 전역이 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후에 동사 그리고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가 등장한다. 전형적인 어순을 따랐다면 이 문장은 'Ein Sprecher des Gesundheitsministeriums in München teilte mit, ein Mann aus dem Landkreis Starnberg habe sich infiziert (뮌헨 보건부 대변인이 Starnberg 구 출신의 한 남자가 감염되었다고 전하였다)'와 같이 ein Mann 이하의 내용을 직접 발언한 주체가 문장의 처음에 위치하고 간접 인용의 내용은 문장의 뒤에 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장은 발언 주체인 'Ein Sprecher'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다. 그러나 (14)의 두 번째 문장은 간접 인용한 발언 내용을 문두에 위치시킴으로써 발언 주체보다는 한 남자가 감염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 발언 내용이 가지는 문두성은 (14)의 첫 문장과 관계하여 독일의 첫 감염자에 대한 내용이 이 기사 혹은 이 문단의 주제라는 것을 담화 수용자에게 계속적으로 상기시킨다.

(14)의 두 번째 문장은 앞 문장과 관련하여 주제 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써 간접 인용된 발언 내용을 문두에 위치시켰을 가능성이 높지만 독일의 온라인 기사에는 인용과 관련한 문장에서 (14)의 두 번째 문장과 같이 발언 주체가 문장의 뒤에 위치하고 발언 내용이 문두에 위치하는 문장 구조가 자주 출현한다.

(15) ...(중략) **Tatsächlich sei die Gefahr, die in Deutschland vom Influenza-Virus ausgehe, viel konkreter**, betonte RKI-Sprecherin Susanne Glasmacher in einem Interview mit dem Rundfunk Berlin-Brandenburg (rbb): **"Wenn wir sehen, dass wir jetzt bei der laufenden Grippewelle schon über 13.000 bis 14.000 labordiagnostisch bestätigte Influenza-Erkrankungen haben und auch schon über 30 Todesfälle, dann ist das eine ganz andere Nummer"**, sagte Glasmacher. (중략)...(2020.1.27. DW 기사내용 중)

(16) ...(중략) **Weltweit sei die Gefährdung "hoch"**, erklärte die

Organisation, die bisher nur von einer "moderaten" weltweiten Gefahr gesprochen hatte. (중략)...(2020.1.27. DW 기사내용 중)

(15)과 (16)의 기사내용은 (14)과 같은 기사에서 추출한 내용으로 한 기사 내에서도 (14)의 두 번째 문장과 같은 '발언내용-동사-발언주체'의 구조를 가진 문장이 여러 번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5)에서는 인용 문장이 각각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으로 두 번 사용되었는데 (14)와 같은 간접 인용의 문장이 아니라 직접 인용의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언내용-동사-발언주체'의 구조를 가진 문장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수의 독일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문장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냐고 물어보았을 때 모든 독일어 원어민이 발언 내용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이해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 중 한 독일어 원어민은 "die Zeitung schreibt ihre Sätze gerne mit Passiv, weil die Aussagen hervorgehoben werden soll und es weniger wichtig ist, wer es gesagt hat(진술이 부각되어야 하고 누가 그것을 말했는지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신문은 문장을 수동태로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제시된 (14)~(16)은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쓰여진 문장이고 답변자 역시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받아들일 때는 진술이 문장 앞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장을 수동태처럼 인식을 하였다. 해당 답변자에게 이에 대해 다시 물어보았을 때 답변자는 "Es kommt darauf an, was im Vordergrund steht. Für mich wirkt der Satz wie ein Passiv Satz(무엇이 전면에 위치해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나에게는 해당 문장이 수동태 문장으로 읽힌다)"고 답하였다. 테마-레마 구조 Theme-Rheme Gliederung를 통해 살펴보면 수동태 문장은 새로운 정보인 레마가 문두에 위치하게 되면서 주제화 Thematisierung되고 강조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테마의 의미와 역할은 약해진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독일어 온랑니 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발언내용-동사-발언주체'

라는 문장 구조를 분석해보자면 진술을 문두에 위치시킴으로써 분명 능동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 문장과도 같이 레마인 진술을 주제화 시키면서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은 독일 온라인 기사가 공신력을 가진 인물이나 기관의 발언을 인용할 때 “발언 주체”보다 “발언 내용”을 주제화 하고 강조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한국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 분석

한국의 온라인 기사 역시 3.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어휘 그리고 문법 차원에서 언어 사용을 분석해보고 각각의 특징을 파악해본다.

3.2.1. 어휘적 차원

① 불필요한 수식어의 사용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이 아직 한국에서는 낯설었던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초의 관련 온라인 기사에는 중국의 코로나19 조치에 대해 ‘발빠른’, ‘신속히’, ‘서둘러’ 등과 같은 어휘로 표현하고 있다.

(17) ...(중략)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30명 가까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긴급히** 조사에 나섰다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략) (2019.12.31. 뉴스핌)

(18) ...(중략)현지 보건당국이 **서둘러** 시장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중략) (2020.1.2. 한겨레 기사내용 중)

위의 예시에서 나타난 ‘긴급히’, ‘서둘러’와 같은 부사는 문장 내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 불필요한 성분임을 아래의 재구성된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8)′ 현지 보건당국이 시장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긴급히’, ‘서둘러’와 같은 어휘를 첨가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한 사실((17)′)’과 ‘시장 폐쇄 결정을 내린 사실((18)′)’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같은 어휘를 사용한 것은 담화 생성자의 중국의 대응에 대한 태도 혹은 관점이 녹아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담화 생성자의 주관을 반영한 어휘는 비단 부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19) 현지 보건당국이 ...(중략) 폐쇄하기로 했다. 2002~2003년 중국을 휩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의식해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2020.1.2. 한겨레 기사내용 중)
(19)′ 현지 보건당국이 ...(중략)... 소문을 의식해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9)의 기사내용에서 ‘발빠른’이란 표현 역시 (19)′의 재구성된 문장에서와 같이 삭제되어도 보건당국이 소문을 의식해 시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 역시 중국의 대처에 대한 담화 생성자의 주관이 반영된 어휘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어휘의 사용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 ‘공포’나 ‘불안’ 등의 어휘는 주로 기사제목

에서 드러난다.

(20) 中 우한서 정체불명 바이러스성 폐렴 번져...'사스 **공포**' 확산 (2019.12.31. 뉴스핌)

(21) 중국 '원인 모를 폐렴' 확산…'사스 **공포**' 퍼지자 시장 폐쇄 (2020.1.2. 한겨레)

(20)와 (21)의 기사제목에서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과거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던 '사스와 맞먹는 공포'라고 범주화하고 있다. 이처럼 공포라는 어휘를 사스라는 과거의 경험과 결합시킴으로써 담화 생성자는 담화 수신자로 하여금 '정체불명의/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극대화시킨다. 공포라는 어휘를 사스와 함께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에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담화 생성자의 의도성이 엿보인다.

공포와 같은 단어는 한국기자협회의 감염병보도준칙에 어긋난다. 협회의 감염병보도준칙에는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으로 "기사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사용[18]"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라는 어휘는 이 정체 모를 바이러스가 사스와는 또 다른 신종바이러스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기사의 제목에 노출된다.

(22) 우한 폐렴 **공포**..방문 학생·교직원 '14일간 등교 금지' (2020.1.28. 세종의 소리)

(23) 썰렁한 명동 거리 "20~30% 손님 줄어"… '우한 폐렴' **공포** 덮친 유통업계 (2020.1.29. 조선비즈)

(22)과 (23)의 기사제목이 (20), (21)와 다른 점은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2020년 1월 28일까지 총 4명의 확진자가 발

18) 출처: 한국기자협회의 감염병보도준칙 (https://www.journalist.or.kr)

생하면서 한국도 더 이상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22)의 기사제목과 같이 ‘등교 금지’ 그리고 (23)과 같이 ‘손님 줄어’와 같이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공포로 범주화하고 있다.

(24) 앞으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교직원은 의심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일정 기간 등교가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고강도 비상대책이 시행되는 셈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 같은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모든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국 방문 이력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경우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14일간(귀국일 기준) 등교를 금지시키고 자가 격리토록 했다. 다만 등교 중지 학생의 출석은 인정된다.
개학 학교는 마스크, 체온계, 소독제를 비치하고 시설 방역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졸업식의 경우 학급별로 분산 실시할 것도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이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조치다. ...(중략) (2020.1.28. 세종의 소리)

(24)의 기사는 (22)의 기사제목에 대응하는 기사내용이다. 실제 기사내용은 세종시교육청의 코로나19 사태의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분위기는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담화 생성자는 기사제목에 ‘공포’라는 표현을 노출시켜 일상생활이 위협되는 불안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공포’ 어휘가 기사에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나 발생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다.

(25) [르포] "지나가기 꺼려져"…우한폐렴 **불안**에 손님 뜸한 수원 '중국인 거리' (2020.1.28. 뉴스핌)

(26) "中친구들 속속 귀국하는데 휴학해야 하나"… 대학가 덮친 우한폐렴 **공포** (2020.1.29. 조선일보)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우한으로 알려져 있고 우한은 중국 중부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포의 대상의 쉽게 중국과 중국인에게로 향할 수 있다. 기사제목에 지시되어 있는 '수원에 사는 중국인'이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국 친구들'의 코로나19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단지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성된 추측에 불과하고 잠정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담화 생성자는 공포의 방향을 중국과 중국인에게로 의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포' 단어의 사용은 담화 생성자의 주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질병 표기

코로나19 발생 초기 아직 한국에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인지 자체가 희미했던 2019년 12월 말에서 2020년 1월 초 사이의 한국 온라인 기사는 코로나19를 '정체불명 바이러스성 폐렴', '원인 모를 폐렴'으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에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정보가 폐렴과 비슷한 증상 정도만 있었을 뿐, 질병의 원인이나 정체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 표기는 당장의 새로운 질병과 관련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표기는 며칠 지나지 않아 '우한 폐렴'으로 바뀌게 되고 바뀐 표기는 지속적으로 기사에 노출된다.

(27) 중 후베이성 **우한 폐렴** 사태…WHO 주시, 전문가들 신종바이러스 우려 (2020.1.5. 동아사이언스)

(28) 中, '홍콩에 **우한 폐렴** 확산' 소문 진화나서…"가짜 뉴스" (2020.1.8. 연합뉴스)

위와 같이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기사는 처음 새로운 질병의 존재가 확인되었던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의 질병 관련 기사 총 11건 중 6건이 발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 폐렴' 혹은 '우한 집단 폐렴'의 명칭으로 표기된 기사도 각 1건씩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은 새로운 질병의 첫 발생이 중국의 우한인 것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9일 WHO가 새로운 질병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 공식화하였지만 한국 온라인 기사에서는 이후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사 대부분에서 우한 폐렴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29) 中, **우한 폐렴** "사스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정 판정(종합) (2020.1.9. 연합뉴스)
(30) 중국서 '**우한 폐렴**' 첫 사망자 발생…60대 남성 (2020.1.11. 한겨레)
(31) 中, **우한 폐렴** '사람 간 전염' 가능성 인정…춘제 대이동 우려 (2020.1.15. 서울신문)
(32) 중국 '**우한폐렴**' 환자 하루만에 17명 늘어…각국 경계령(종합3보) (2020.1.19. 연합뉴스)
(33) 베트남 호치민서 중국인 2명 **우한 폐렴** 확진 (2020.1.24. 중앙일보)

우한 폐렴 명칭은 기사내용에서는 WHO가 공식 명명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병기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사제목에서는 항상 단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4)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초보 단계 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판정됐다. 9일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추가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러스 분석 평가팀을 이끈 중국 공정원의 쉬젠궈(徐建國) 원사는 "실험실에서 바이

러스 분석을 통해 이번 **원인 불명의 폐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잠정 판명됐다"고 밝혔다. ...(중략) (2020.1.9. 연합뉴스)

(35)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하루 만에 17명이 늘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설)을 앞두고 **바이러스**가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략)...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다수 발생했던 화난(華南) 수산도매시장에 노출된 적이 없다. 화난시장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도축된 야생동물도 판매하는 곳으로 이 시장의 상인과 손님 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화난시장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의미는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리강(李剛) 우한시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은 중국중앙방송(CCTV) 인터뷰에서 "제한적인 사람간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지속적인 사람간 전염의 위험은 비교적 낮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력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략) (2020.1.19. 연합뉴스)

(34)과 (35)는 각각 (29)과 (32)의 기사제목에 대응되는 기사내용이다. 각 기사내용의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기사 초반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는 명칭과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0년 1월 27일 한국의 정부에서는 질병의 명칭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 표기할 것을 언론에 권고하였다. 이는 질병 명칭 앞에 질병의 발생지역을 병기함으로써 해당 지역 및 출신자에 대해 편견이나 혐오의 시선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WHO에서는 새로 발병되는 병명과 병의 원인체에 대한 명명 원칙을 수립할 때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또는 음식의 종, 문화, 인구, 산업 또는 직업 등[19]을 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

1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95

서는 이후로도 계속 우한 폐렴이라는 질병 명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6) [국토매일] 설 명절을 강타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2020.1.27. 국토매일)

(37) **우한폐렴** 확진자 다녀간 CGV 성신여대점, 영화 상영 중단 (2020.1.31. 조선비즈)

(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다녀간 영화관 CGV 성신여대입구점이 영화 상영을 중단했다. ...(중략)...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한 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2020.1.31. 조선비즈)

2020년 1월 28일 뉴데일리의 기사[20]에서는 우한 폐렴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중국 눈치 보기라는 지적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제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명칭은 질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대중들에게는 질병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이 잘 와 닿지 않는 표현이라 말하고 있다.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은 한눈에는 질병의 증상에 대한 정보와 해당 지역에의 이동을 경계하는 등의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명칭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한 폐렴' 명칭은 주로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30)의 기사제목에서는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었고 (31)의 기사제목에서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로는 (36)과 같이 '설 명절을 강타한'이나 (37)와 (38)에서처럼 'CGV 성신여대점, 영화 상영 중단'과 같은 일상생활의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내용과 함께 표기되는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

20)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1/28/2020012800143.html

식뿐만 아니라 우한이라는 지역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3.2.2. 문법적 차원

① 공신력을 가지는 단체나 개인의 문두성

한국어는 동사가 문장의 끝에 위치하기만 하면 그 외의 문장성분들의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이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반드시 문장의 처음에 위치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위상이 높지 않아 주어가 문두성을 필수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위험보도 담화에서는 공신력을 가진 단체·기관 혹은 개인이 행위의 주체로 등장할 때 많은 경우에 문두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9) ...(중략) **질본 관계자는** "A 씨가 검역단계에서 격리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략) (2020.1.20. 동아일보 기사내용 중)

(40) ...(중략) **질본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중략) (2020.1.20. 동아일보 기사내용 중)

(41) ...(중략) **질본 관계자는** "확진환자에 대해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종 폐렴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중략) (2020.1.20. 동아일보 기사내용 중)

(42) ...(중략)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신종플루 기준으로는 10년이 지났고 메르스 사태 이후는 4,5년째 됐다. ...(중략) (2020.1.20. 동아일보 기사내용 중)

(43) **김 교수는** "신종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낯설기 때문에 초기에는 심한 중증 폐렴으로 오지만 바이러스가 변이하며 인간에 적응하게 되면 전파력이 올라가게 된다"고 언급했다. ...(중략)

(2020.1.20. 동아일보 기사내용 중)

(39)부터 (43)까지는 모두 하나의 기사에서 발췌한 기사내용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공신력을 가지는 한국의 정부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그에 소속된 개인들 그리고 감염내과 교수가 문장의 시작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신력을 가지는 기관과 개인은 특히 '진술 Aussage' 행위에서 문두성을 가지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 공신력을 가지는 기관이나 개인이 문장의 처음에 나타나는 문두성은 (39)~(43)의 예시처럼 주어의 형태로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44) ...(중략) 질본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우한시 거주자로 입국 하루 전인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감기 진단을 받았다. ...(중략) (2020.1.20. 동아일보 기사내용 중)

(44)의 문장에서는 주어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질본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으로 공신력을 가지는 기관을 문두에 위치시키고 있다. 뿐만 니라 '~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은 질병관리본부가 어떠한 정보를 언급했고 이 정보가 기사에서 간접 인용된다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44)의 예시에서도 역시 '언급' 행위에 있어 공신력을 가지는 기관이 문두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행위의 주체의 생략 현상

앞서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위상이 높지 않다고 하였다. 신효식(2013, 198) 역시 주어는 한국어에서 큰 위상을 갖지 못하며 오히려 문맥을 통해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어의 생

략 현상은 코로나19 담화에서도 나타난다.

(45) ...(중략) 질본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우한시 거주자로 입국 하루 전인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감기 진단을 받았다. 이번 폐렴 확산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화난 해산물시장을 비롯해 우한시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력은 없었으며 야생동물과 접촉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2020.1.20. 동아일보 기사내용 중)

(45)의 기사내용에서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행위의 주체는 'A씨는'으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밑줄 친 다음 문장에서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력이 없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주체는 드러나 있지 않다. 담화 생성자는 이를 이 기사를 읽는 담화 수용자로 하여금 맥락을 통해 생략된 행위의 주체가 'A씨'라는 것을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행위의 주체가 생략되는 현상은 (45)과 같은 능동형의 문장에서도 나타나지만 피동형의 문장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자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이 자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략) (2020.1.28. 연합뉴스 기사내용 중)

(47) ...(중략)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과 일본, 북한, 대만, 홍콩 등 인접 국가들은 중국과 인적 교류가 훨씬 많다. 인접 국가들이 더 반응이 즉각적이고 예민한 것이 당연하다"거나 "(잠복기 감염자의 경우) 무증상으로 공항에서 걸러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중국인 입국을 아예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략) (2020.1.28. 연합뉴스 기사내용 중)

(46)과 (47)의 기사내용에서 ‘확인된’과 ‘제기됐다’는 피동형으로 표현된 문장에는 ‘누구에 의해서’ 해당 내용이 각각 ‘확인되’고 ‘제기되었’는지에 대한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이렇듯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피동형으로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은 담화 생성자로 하여금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객관성, 진실성 혹은 사실성 내지는 비판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게 한다.

(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자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이 자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가운데

(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자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이 자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한** 가운데

(47)’ ″...(중략)...중국인 입국을 아예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47)” ″...(중략)...중국인 입국을 아예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46)’과 (46)”는 (46)의 문장을 능동형으로 바꾼 문장이다. (46)’의 경우 북한이 자국민과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을 사실로 단언한 문장이다. 이와 같은 능동형 문장을 사용한다면 담화 생성자는 단언적으로 표현한 문장에 대한 사실성 내지는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6)”의 문장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한 주체가 빠져있다. 앞서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지만 이는 맥락상에서 주어에 대한 유추가 가능할 때, 즉 앞서 행위의 주체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경우이다. 그러나 해당 문장이 기사의 첫 번째 문장인 사실을 감안한다면 앞서 주어가 언급이 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46)”의 문장은 ‘누가’ 해당 내용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확인을 한 주체는 확인을 한 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객관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47)’와 (47)” 문장은 사실 (47)의 문장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왜냐하면 지적에 대한 내용이 직접

인용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능동형 문장과 함께 해당 발언을 한 주체가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장들도 역시 지적을 한 주체와 지적을 제기한 주체는 지적을 했다는 비판에 대한 책임과 거리두기 어렵다. 특히 지적한 내용은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이 차별 담화를 생성했다는 부담을 지적의 주체는 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주어의 생략이 가능한 한국어의 특성이 코로나19 담화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담화 수용자로 하여금 행위의 주체를 맥락상으로 유추하게 한다. 그리고 담화 생성자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한다.

4. 독일과 한국의 담화 구성 비교

이 장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한국과 독일의 온라인 기사가 어떠한 담화를 형성하였는지를 3.1.과 3.2.에서 시행한 한국과 독일의 온라인 기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언어학적 관점에서 비교한다.

지난 2019년 12월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기사를 시기별로 짚어보기에는 기사의 양이 너무나 방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과 독일에 공통되는 코로나19 관련 특정 이슈를 세 가지 선정하여 각 이슈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온라인 기사를 분석하고 비교한다. 기사 비교를 위해 선정한 세 가지 코로나19 이슈는 1) 코로나19 발병, 2)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에 대응한 방역수칙 3) 백신 접종이다.

온라인 기사의 코로나19 관련 이슈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한 이슈는 코로나19 초기 발병 당시 이 감염병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던 사회 전반에 매체가 한국과 독일 각각에 어떠한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냈는지를 알아보고 비교하게 해주는 기준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방역수칙이 기사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국가별로 방역수칙이 다를뿐더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도도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매체는 대중들에게 정부의 방역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다루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보성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의 방역수칙과 관련한 코로나19 이슈를 다룬 각 한국과 독일 기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어떠한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두 나라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식과 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해본다. 마지막으로 예상보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예방의 한 방법인 백신 접

종 Impfen과 관련한 한국과 독일의 기사를 살펴보고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한다. 백신 접종은 세계적으로는 2020년 12월 4일에 시작되었는데 독일에서는 같은 해 12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접종이 시작된 반면 한국에서는 2021년 2월 26일에야 시작되었다. 이러한 접종 시기의 차이는 물론 백신 수급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독일 사이에 사회적으로 접종에 대한 담화의 차이 또한 존재하는지 그 차이가 백신 수급이나 백신 접종 시기의 차이와 연관이 있는지를 온라인 기사를 통해 분석 및 비교해보고자 한다. 비판적 담화분석을 통해 3장에서 실시한 온라인 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후부터는 두 나라의 온라인 기사가 형성하는 담화의 양상을 어휘, 문법, 텍스트 차원에서 비교해본다.

4.1. 어휘적 차원

4.1.1. 공포·불안감을 야기하는 어휘 비교

감염병을 다루는 보도 담화에서 공포 프레임은 빠지지 않는다. 손달임(2020)은 코로나19 이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도 보도 담화는 공포 및 위험 프레임을 사용하여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 담화에서도 역시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 1) 공포 혹은 패닉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 확진자,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치로 표현함으로써 드러나 있음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및 불안감을 야기하는 언어적 표현 역시 독일과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 양태 표현을 통해 묘사되고 있다. 독일의 온라인 기사에서는 주로 ‘mysteriös’ 그리고 ‘rätselhaft’와 같은 형용사로 질병을 수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는 ‘공포’, ‘불안’과 같은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48) Zentralchina meldet **mysteriös**e Lungenkrankheit (2019.12.31. Spielgel 기사제목)

(49) In der chinesischen Millionenstadt Wuhan sind knapp 30 Menschen an einem **rätselhaft**en Lungenleiden erkrankt. ...(중략) (2019.12.31. Spiegel 리드 중)

(50) 中 원인 불명 폐렴 환자 속출… 고개 든 '사스' **불안** (2020.1.3. 조선일보 기사제목)

(51)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속출하면서 2003년 중국 대륙에 창궐했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중략) (2020.1.3. 조선일보 기사내용 중)

독일과 한국의 기사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을 표현하기 위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들을 사용하여 질병과 관련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것만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러한 인상은 담화 생성자의 의도적인 어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위험 보도 담화를 형성할 때는 공중의 지나친 공포와 불안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한국의 코로나19 묘사에 사용된 어휘들은 이와 같이 담화 생성자들의 의도에 의해 의미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개별 텍스트 내에서 그 역할은 다소 상이하게 작용한다.

독일의 온라인 기사에서 주로 사용된 'mysteriös'와 'rätselhaft'라는 단어는 주로 폐렴/폐병이라는 뜻의 명사 'Lungenkrankheit', 'Lungenleiden'를 꾸며주기 위한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들은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아직 정보가 부족하여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unerklärlich, unerklärbar 원인불명의; 설명할 수 없는', 'unbekannt 알려지지 않은' 등의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mysteriös'와 'rätselhaft'가 담화 수용자로로 하여금 새로운 질병에 대한 정보를 다소

왜곡하여 이해하도록 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앞선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3.1.장 참조) 해당 단어들은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는 표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정한 어휘들과의 결합, 즉 문맥을 통해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단어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는 단어의 품사적 한계로 인해 질병에 한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불가사의' 하고 '수수께끼 같은' 어휘의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는 '폐렴/폐병'에 집중된다. 이는 담화 수용자로 하여금 독일의 온라인 기사들이 질병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과 동시에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폐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집중하도록 한다.

반면 한국 기사에서는 주로 감정이나 개인적 느낌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어휘 표현인 '불안'과 '공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기사들을 살펴보면 해당 어휘들은 대체로 '확산[21)]', '퍼지다[22)]', '덮치다[23)]', '고개들다[24)]'와 같은 은유적 표현들과 공기어 관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언어적 표현은 담화 수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질병을 객관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은 반드시 공포·불안을 야기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하고 질병의 확산을 이미지화 하여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이 감정적인 반향은 '사스'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 더욱 증폭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사스를 경험한 담화 수용자들은 사스라는 호흡기증후군이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Gerd Antos와 Bettina Radeiski(2009, 119)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불안을 야기하는 표현은 담화 수용자에게 특정한 관점을 심어준다[25)]. 이에 따르면 삭제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어도 무방한 묘사적

---

21) 3.2.절 (20), (21) 참조
22) 3.2.절 (21) 참조
23) 3.2.절 (23), (26) 참조
24) 4.1.1.절 (50), (51) 참조
25) "...(중략) die mediale Textproduktion von dem Eintreten der

표현을 코로나19 담화에 사용한 이유에는 담화 생성자의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어떠한 의도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Antos와 Radeiski(ebd., 120)는 이와 같은 담화 생성자의 관점 내지는 의도를 '바이러스가 공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제화되는(das Virus in Angst erzeugender Weise thematisiert)'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독일과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 사용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정보는 특히 위험 보도 담화에서 중요한 정보성 측면에서는 잉여적인 묘사인 공포 내지는 불안감으로 주제화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온라인 기사에서 공포와 불안감에 대한 묘사는 질병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으로 한정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을 질병에 국한하여 감정적인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한 반면 한국의 기사에서는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담화 수용자에게 동일한 감정과 느낌을 전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1.2. 질병 개념화 어휘 비교

van Dijk는 보도 담화에서 집단적 태도와 이데올로기의 반영의 첫 번째 전략으로 양극화 전략이 사용된다(문규원 2006, 83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양극화 전략이란 우리의 좋은 것은 강조하면서 그들의 좋은 것은 완화하는 반면 우리의 나쁜 것은 완화하면서 그들의 나쁜 것은 강조하는 방식으로 '우리' 집단과 '그들' 집단을 언어적으로 구분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와 '그들' 혹은 '나'와 '너'의 대립화는 코로나19와 같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를 위험과 관련한 보도에서 특히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 대립화가 한국과 독일의 온라인 기사의 제목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본다.

Erzeugung von Angst bei den Rezipienten ausgeht und damit auch deren Perspektive einnimmt: ...(중략)"

(52) **우한 폐렴**: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 발생...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 200명 넘어 (2020.1.20. BBC 기사제목)

(53) **Neues Virus in China**: **Coronavirus** von Mensch zu Mensch übergesprungen (2020.1.20. Der Tagesspiegel 기사제목)

한국과 독일의 2020년 1월 20일 기사에서 한국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우한 폐렴'으로 독일은 'Neues Virus(새로운 바이러스)'와 'Coronavirus(코로나바이러스)'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초기에 병명에 대해서 우한 폐렴으로 명명한 이유는 이 질병이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폐렴과 비슷한 증상을 앓게 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은 사뭇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명칭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폐렴과 비슷한 신종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같은 일자에 발행된 독일의 기사제목에서는 국가명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aus'가 아닌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중국에 신종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는 정부가 해당 용어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표현을 언론사들에 권고한 1월 27일 전까지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각 23건, 21건, 11건, 11건의 기사가 발견되었다. 반면 독일 언론은 코로나19를 발병 초반에는 폐질환 혹은 폐렴이라는 뜻의 'Lungenkrankheit', 'Lungenkrankung'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2020년 1월 9일에 WHO가 이 폐질환·폐렴에 대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 공식적으로 명명한 이후에는 이전의 Lungenkrankheit·Lungenerkrankung라는 표현을 WHO의 권고대로 'Coronavirus(코로나 바이러스)'와 혼용해서 표기하거나 (54)에서와 같이 'Neues Virus(새로운 바이러스)'라 표현하고 있었다[26].

26) 독일의 기사제목에서 병명을 '발병 지역 혹은 국가명+질병 종류'로 표시하고

(54) Mysteriöse **Lungenkrankheit**: **Neues Virus** in China aufgetaucht (2020.1.9. ZDF 기사제목)

한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와 같은 '발병 지역 혹은 국가명+질병 종류'라는 명명 방식은 WHO에서 2015년도에 제정한 "질병의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대상을 사용하지 말 것"(손달임 2020, 154)이라는 질병 명명 방법 가이드라인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기사에서는 여전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55) 중국 '**괴질**' 이틀 새 15명 증가 (2020.1.6. 경향신문 기사제목)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 이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27]"이라는 뜻의 '괴질'이란 단어도 사용하였는데, 이 명칭 역시 앞에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붙여 '발병 국가명+질병 종류'로 방식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 폐렴 바이러스',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의 발원지를 강조하는 명칭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6) 질본 "**중국 폐렴 바이러스**, 박쥐 유래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하나 사스는 아니다" (2020.1.13. 경향신문 기사제목)
(57) 설 연휴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 주의하세요 (2020.1.22. 동아일보 기사제목)

한국 언론의 질병 명명 방식은 앞서 언급한 van Dijk의 양극화 전략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들 집단의 나쁜 것(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을 강조함으로써 우선 해당 국가에 대한 낙인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WHO의 질병 명명 원칙에 따르면 '우한 폐렴',

---

있는 기사는 딱 1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언론사 Bild의 "**So wappnet sich die Frankfurter Uniklinik für das China-Virus**"이다.

27)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어: '괴질'

‘중국 폐렴’ 등의 명칭은 특정 지역과 국가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는 이 질병 명명 방식은 코로나19를 ‘중국’ 그리고 ‘우한’이라는 특정 지역명을 삽입하여 ‘타자화’함으로써 질병 자체를 중국의 것으로 혹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코로나19의 명명 방식은 결론적으로 신종 바이러스의 원인을 중국이라는 외부로 돌리고 그 책임 또한 중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27일까지의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우한 폐렴’이라는 검색어로 찾아보게 되면 2020년 1월 22일을 기점으로 관련 기사량이 증가하는데 2020년 1월 21일의 기사제목과 22일의 기사제목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는 감염병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2020년 1월 21일 기사제목	2020년 1월 22일 기사제목
1	“여객기 내서 체온 측정”…中 '우한 폐렴'에 초강력 대응 요구도 -나우뉴스	국내 '우한폐렴' 의심 4명 더 발생…확산차단 분주 - 연합뉴스TV
2	'우한 폐렴' 확산에 춘절 연휴에도 고향 못가는 중국인 늘어날 듯 - 조선일보	**"'우한폐렴' 박쥐 유래**...사스보다 약하지만 전염성·변이성 강해" -뉴스핌
3	중국 우한폐렴 확진자 258명으로 60명 증가. 사망자 2명늘어 6명 -뉴스핌	**"우한 폐렴, 사스처럼 박쥐에서 발원**…전염성 매우 높아"(종합) -연합뉴스
4	'사람간 전염된다'…中의료진 15명 우한폐렴 감염 -연합뉴스TV	"우한 폐렴 팬데믹 직전 단계"...'제2사스' 공포 전세계 강타 -프레시안
5	'춘제 비상' 中매체, 우한 폐렴 예방법 홍보…마스크 품절 -연합뉴스	“우한 폐렴 전파력, 메르스보다 높고 사스보다 낮아” -한겨레
6	[뉴스파노라마] 엄중식 교수 "우한 폐렴, 독감과 감별 어려워... -BBS 뉴스	전북 '우한 폐렴' 증상 대학생 음성 판정…격리 해제(종합) -연합뉴스
7	“우한 폐렴 유입 막아라”…인천공항 방역 -한국경제	'우한 폐렴' 퍼지는데 기자회견 마스크 착용도 막는 중국 -연합뉴스
8	충남서 ‘우한 폐렴’ 확진자와 접촉한 4명 확인...“증상은 없어” -동양일보	"방어선을 사수하라"…전국 공항·항만 '우한 폐렴' 차단 총력전 -경북매일신문
9	[이원주의 날飛]비행기서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 낮은 좌석은? -동아일보	수원시, '우한폐렴 유증상자 1명 포함' 태스크포스팀 구성해 강력 대응 -한국경제
10	본격적인 우한 폐렴 백신 제작 시작!. 관련주 잡고 갑니다!![22일 상한가 확인 必] -아시아경제	“北,우한폐렴으로 북중 국경 폐쇄”...통일부 “대북관광 계속 추진” -뉴데일리

11		행안부, '우한 폐렴' 국내 확산 막기 위해 비상대비체제 돌입 -투데이신문
12		['우한 폐렴' 대처 방법]비말로 전파... 손 씻기·기침예절 지켜야 - 서울경제
13		확산되는 우한 폐렴, 제2 메르스 사태 오나 -대전일보
14		'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 접촉한 3명 의심 증상…검사 결과 '음성' -한겨레
15		中우한 폐렴, 가족 등 밀접 접촉자에 주로 환자 발생...발열 기침 등 입국장에서 유증상자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16		[그래픽] 우한 폐렴 확산 현황 -연합뉴스
17		중국 '우한 폐렴' 확산 우려 -천지일보
18		[그래픽] 중국 '우한 폐렴' 전 세계 확산 현황 -뉴스핌
19		"우한 폐렴, '춘절'이 확산 고비…서울시 24시간 비상체제"
20		中, 우한폐렴 사망자 9명…모두 후베이성에서 나와 -머니투데이
21		中 '우한 폐렴' 중화권 이어 미국까지…'통제불능' 상태 빠지나 -국민일보
22		국내 '우한 폐렴' 증상자 4명 추가…검사 중 -TBS 교통방송
23		국내 '우한 폐렴' 증상자 4명 모두 '음성'…확진 1명 유지 -TBS 교통방송
24		전주서 '우한폐렴' 의심환자 발생 -전라일보
25		'우한 폐렴' 국내 진입에 대전 종합병원도 비상 -중도일보
26		中, 우한 폐렴 해외 확산에도 "책임 있게 대처" 입장 반복 -매일경제
27		[14F] 미국에서 첫 우한 폐렴 환자 발생....미국 '공항 검역 대상 확대, 북한 사실상 '국경 봉쇄', 한국 '밀접접촉자 관리' -MBC뉴스

[표 1] '우한 폐렴' 검색어로 찾은 2020년 1월 21일 기사제목과 2020년 1월 22일 기사제목

2020년 1월 22일에 발행된 우한 폐렴 관련 기사제목은 그 전까지의 기사제목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우한 폐렴의 원인을 지목하고 있는 기사제목

이 두 개 있는데 이 기사제목들에서는 박쥐가 그 원인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 중 세 번째 기사를 확인해보면 기사제목 아래로 리드가 보이는데 리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2020년 1월 22일에 발행된 우한 폐렴의 원인과 관련한 기사의 제목과 리드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8)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우한 폐렴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처럼 박쥐에서 발원했으며 전염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가오푸(高福) 센터장은 이날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우한 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와 매우 높은 유사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략)... 연구팀은 "박쥐와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미지의 중간숙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스는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향고양이로 옮겨진 뒤 이 사향고양이를 통해 다시 사람에게 전파됐다. ...(중략)...**우한 폐렴의 진원지로 알려진 이 시장은 겉으로는 수산물을 팔지만, 시장 내 깊숙한 곳에서는 뱀, 토끼, 꿩 등 각종 야생동물을 도살해 판매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략)...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한 과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며, 이는 이 바이러스가 천연두와 같은 DNA 바이러스보다 1천 배 이상 빠른 변이 속도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SCMP에 말했다. ...(중략)

(2020.1.22. 연합뉴스 기사내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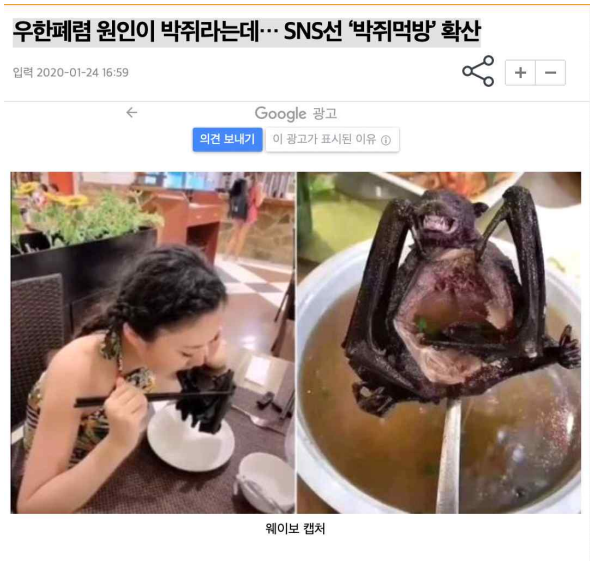
실제 기사는 신종 바이러스가 사스와 매우 유사성이 매우 높아 박쥐에서 발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지기까지의 숙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연구를 통한 추정으로는 신종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기사제목은 기사내용을 압축적으로 핵심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리드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문구는 기사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먼 "시장서 팔린 야생동물을 매개로 인간에게 전염된 듯"이라는 문구인데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시장에서 팔리는 야생동물을 매개로 신종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전염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비록 실제 기사 내용은 그 경위가 핵심이 아님에도 말이다. 실제로 기사 내용 안에 그 경위와 관련한 내용은 짤막하게 나오지만 이마저도 '어떠한 경로로 시장 내 깊숙한 곳에서 판매된 야생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전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의 제목과 리드 그리고 내용의 조합은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게로 옮겨져 그 야생동물을 먹은 인간에게로 전염되었다'는 담화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하루 후인 2020년 1월 23일에 발행된 기사들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제목이 눈에 띈다.

(59) "**우한폐렴**, **야생동물서 비롯**…'메뉴판에 코알라' **식문화** 바꿔야"
(2020.1.23. 연합뉴스 기사제목)

(60) '악어·오소리·뱀 **배달 가능**', **우한폐렴** 발원 시장 가격표 공개
(2020.1.23. 경향신문 기사제목)

2020년 1월 23일의 기사제목은 하루 전인 2020년 1월 22일의 기사제목과 내용을 통해 만들어진 담화에서 '중국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일상적으로 먹는다 → 중국 사람들의 식문화로 인해 인간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

었다'는 담화를 새롭게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0년 1월 24일에 실제로 중국 사람이 박쥐를 먹는 기사제목과 내용이 노출되면서 전날에 형성된 담화가 굳어지게 된다.



[그림 6] 2020년 1월 24일에 발행된 국민일보의 기사제목과 기사내용의 일부[28]

'야생동물을 일상적으로 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식문화로 인해 신종 바이러스는 인간에게로 전염되어 확산되었다'는 담화의 형성은 중국과 중국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고 신종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 또한 그들 집단인 중국과 중국 사람으로 돌리게끔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담화 생성자의 의도는 해당 온라인 기사의 댓글[29]에서 잘 드러난다.

(61) 추악 미개한 중국 족속! (박**, 2020.1.25.)

(62) 이번일을 계기로 야생동물 식용 금지 및 위생 식생활 개선안이 나왔

28) 해당 기사 외에도 2020년 1월 24일에 발행된 박쥐먹방 관련 기사는 세계일보의 기사가 1건 더 존재한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박쥐 및 야생동물에 대한 식문화를 언급하는 기사가 발행된다.

29) 아래의 온라인 기사 댓글은 일부러 맞춤법에 맞춰 수정하지 않고 댓글 적힌 그대로를 인용하였다.

으면 하네요..(스**, 20201.25.)

(63) 대~~단하다 대단해. 저런 무식한 짱개인들은 살다살다 처음이다ㅡㅡ (진**, 2020.1.25.)

(64) 진짜 미친거 아니냐 ? 중국인들 니들이 전세계 사람들한테 진짜 민폐다 먹울게 없어서 박쥐를 먹냐!! (J**, 2020.1.25.)

(65) 먹을게 없어서 저런걸 잡아먹나? 한심한 짱깨들..우리도 참 재수옴붙었따..위로는 전염병병에..밑으로는 방사능에..아주 쥐띠해에 쥐...랄이구나.(백**, 2020.1.26.)

(66) 미개한 중국인..국제 망신이다..(Li**, 2020.2.1.)

기사의 댓글에서 드러나는 담화 수용자들의 반응을 통해 한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원인과 관련한 담화는 중국과 중국인에게 혐오감을 느낌과 동시에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와 책임 전가의 담화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거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67) [이슈있슈] 설연휴 **중국인 13만명 입국…'우한 폐렴' 공포** (2020.1.25. 서울신문 기사제목)

(68) 춘절 중국인 입국 13만명, **靑 입국반대 청원 25만명**…동네 병의원들 "이번에도 무방비" (2020.1.26. 동아사이언스 기사제목)

(69) '우한 폐렴' 확산되자 '**중국인 출입금지**' 안내문 붙여 쫓아내고 있는 **일본 상황** (2020.1.26. 인사이트 기사제목)

중국과 중국 사람에 대해 만들어진 코로나19 초기의 담화는 이와 같이 담화 수용자로 하여금 중국 사람들이 전염병을 몰고 오는 것으로 인식시킴으로써 그들 집단을 혐오와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들 집단과의 단절을 통해 우리 집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식의 담화를 생성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기사에서는 2020년 1월 9일 WHO에서 신종코로나바이

러스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폐병 혹은 폐렴이라는 뜻의 'Lungenkrankheit', 'Lungenerkrankung', 'Lungenentzündung'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2020년 1월 9일 이후로는 대부분의 기사에서 'Coronavirus'라고 표현되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의 명칭에 특정 국가나 지역명을 넣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질병 명명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70) 27 Erkrankte identifiziert: Mysteriöse **Lungenkrankheit** in China ausgebrochen (2020.1.1. Welt 기사제목)

(71) Neues **Coronavirus** ähnelt SARS-Viren aus Fledermäusen (2020.1.13. Ärzte Zeitung 기사제목)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병명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발원지를 표기하지 않고 사용한 '폐렴'이라는 표현은 새롭게 출현한 병의 종류 및 증상 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70)의 기사제목에서는 국가명이 'in China'의 형태로 나타나있지만 이는 폐렴의 증상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진술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71)의 2020년 1월 13일에 발행된 기사의 제목 역시 한국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었던 기사의 제목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 기사의 제목에서는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과 함께 박쥐를 먹는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식문화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전염병의 귀책사유를 그들 집단으로 돌리려는 반면 독일의 기사제목에서는 WHO의 권고에 맞추어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박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발견된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 사이의 온라인 기사를 '바이러스'와 '박쥐'라는 한국어 검색어로 구글 뉴스에 검색하면 최소 10페이지의 분량의 기사가 검색된다. 반면 독일 온라인 기사 검색에서는 첫 확

진자 발생 전후로 1주씩 총 2주 동안의 온라인 기사를 검색해도 5페이지 분량 정도의 기사만 검색된다.

1	Coronavirus - Verbreitung durch Fledermaus-Suppe? (Faktencheck) (2020.1.28. Mimikama)
2	Keine Belege, dass ein Markt mit exotischen Tieren in Wuhan der Ursprung des neuen Coronavirus war (2020.1.28. Correctiv)
3	Coronavirus: Fledermaus-Suppe? Die Mythen zur Lungenkrankheit im Faktencheck (2020.1.29. T-Online)
4	Coronavirus: Fake News und Verschwörungstheorien (2020.1.31. Dlf Nova)
5	Coronavirus: Fledermäuse sind mögliche Infektionsquelle (2020.2.1. Heilpraxis)
6	Coronavirus: Todesvirus aus dem Land der Fledermaus-Esser (2020.2.2. Frankfurter Rundschau)
7	Fledermäuse sind Reservoire für teils gefährliche Erreger (2020.2.3. der Tagesspiegel)
8	Gefahr durch das Corona-Virus? - Die dringendsten Fragen - von Experten beantwortet (2020.2.3. SRF)
9	Wissenschaftler vermuten: Coronavirus stammt von Fledermäusen (2020.2.4. BR24)

[표 2] 2020년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검색어 'Virus'와 'Fledermaus'로 검색된 독일 온라인 기사의 제목들

총 5페이지 분량 중 '바이러스 Virus' 그리고 '박쥐 Fledermaus'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사는 총 9개다. 9개의 기사 중 단정적으로 바이러스와 박쥐(혹은 야생동물) 간의 연관 관계를 진술하고 있는 기사는 6번 기사단 하나이다. 6번 기사는 국가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Fledermaus-Esser(박쥐를 먹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박쥐를 먹는 식습관과 바이러스를 연결 짓고 있다. 뿐만 아니라 'Todesvirus(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나머지 기사들은 질문형 내지는 Faktencheck(팩트체크) 혹은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1,3,4번

기사) möglich(가능한), vermuten(추측하다), teils(부분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5,7,9번 기사) 그리고 Fragen-beantworten(질문과 대답하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8번 기사) 바이러스와 박쥐와의 관계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2번 기사는 keine Belege(증거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표한 기사제목들보다는 분명하게 바이러스와 박쥐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낸다.

독일의 코로나19 발생 원인과 관련한 담화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기사제목들은 그 내용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72) - Wurde das Virus im Labor entwickelt?
Nein, der derzeitige Kenntnisstand sieht den Ursprung für die Ausbreitung auf einem Wildtiermarkt in Wuhan. ...(중략)...
- Hat Bill Gates etwas mit dem Coronavirus zu tun?
Nein, das hat er nicht, auch wenn es eine entfernte Verbindung gibt: Eines der Patente auf einen mit dem aktuellen Erreger verwandten Coronavirus gehört dem Pirbright-Institut, das von der Bill-und-Melinda-Gates-Stiftung unterstützt wird. ...(중략)...
- Was ist an dem Panikvideo dran, das im Umlauf ist?
Nach aktuellem Kenntnisstand ist das nicht wahr: ...(중략)...
- Ist die Quelle des Virus′ eine Fledermaus-Suppe?
Welches Tier der ursprüngliche Träger des Coronavirus′ ist, weiß man bislang noch nicht. Die britische Boulevardzeitung "The Sun" behauptet aber: Die Infektion sei möglich gewesen, ...(중략)...(2020.1.29. T-Online 기사내용 중)

(73) Wissenschaftler rätseln, welches Tier der ursprüngliche Wirt des neuartigen Coronavirus gewesen sein könnte. Nun haben chinesische Forscher herausgefunden, dass es stark einem Coronavirus von Fledermäusen ähnelt. (2020.2.4. BR24 리드)

(72)은 [표 2]의 3번 기사제목에 대한 기사내용이다. (72)의 기사내용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한 의문들에 답하면서 코로나19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3)는 [표 2]의 9번 기사제목에 대한 리드로 기사제목에서 압축적으로 전달되었던 코로나19의 원인과 관련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74) Woher kommt die ganze Panik bezüglich des Coronavirus? Weil er aus dem Feindbildland China kommt? (2020.2.2. Frankfurter Rundschau 리드)

(74)는 [표 2]에서 유일하게 바이러스와 박쥐 및 박쥐를 먹는 행위와 단정적으로 연관시킨 6번 기사제목의 리드이다. 리드에서도 'Panik(공포감)' 그리고 'Feindbildland(적개심을 가지는 나라)'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휘를 사용하며 공포감과 적개심을 중국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포와 적개심으로 주제화된 코로나19 담화는 독일의 담화 수용자들에게는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75) "Woher kommt bloß diese Panikmache?" Überschrift: " Todesvirus..."...Die Frage wurde somit selbst beantwortet. (H**, vor 2 Jah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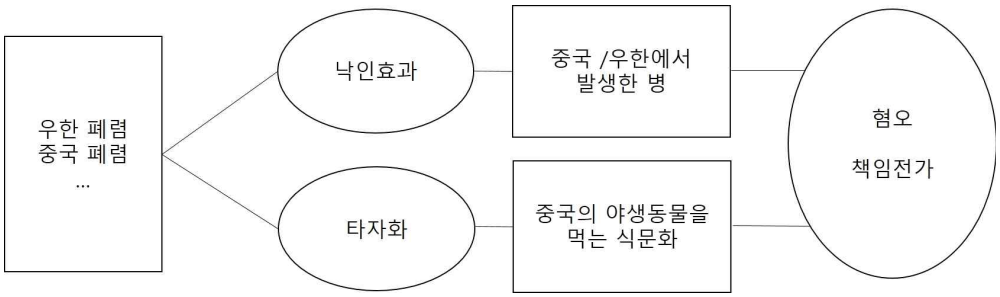
(76) Jetzt machen die Chinesen schon unsere Grippeviren nach. Sorry, das geht ja gar nicht. Aber zum Glück sind wir bei den Grippenviren führend. Ok, wir haben zwar auch keine richtigen Gegenmittel - aber egal. Dafür essen wir ja Vernünftiges - wie diese süßen Ferkelchen und die lustig hüpfenden Lämmchen. Hach, zurücklehnen und sich in der Überlegenheit sonnen. Das hat doch was. (U**, vor 2 Jahren)

(77) Am meisten Aufhebens scheinen die Chinesen selbst um das Virus zu machen, dazu braucht's gar keine anti-chinesis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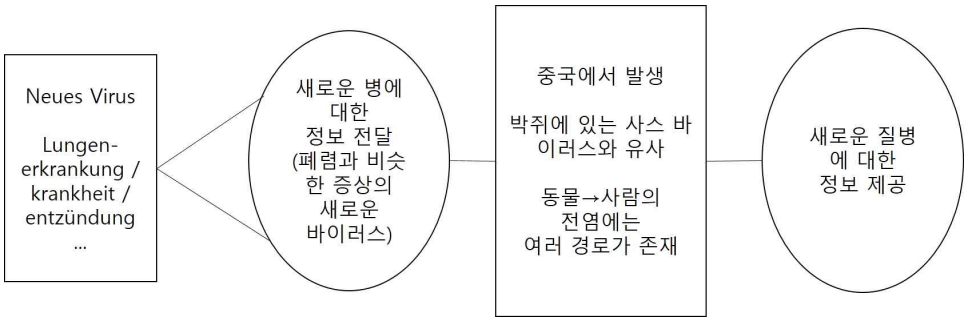
Berichterstattung.
Eigentlich seltsam. Wenn das Virus harmloser ist als eine Grippe, warum dann dieser Panikmodus? (M**, vor 2 Jahren)

(75)의 댓글은 (74)의 리드에 있는 '코로나의 공포심은 어디에서 오는가?'의 질문에 대해 제목에 있다고 기사를 비꼬는 내용이다. (76)의 댓글 역시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에 독일에서는 조류독감 Vogelgrippe이 기승이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우리가 선배라고 비꼬면서 새끼돼지, 새끼양을 먹는 독일이 박쥐를 먹는 중국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것을 비꼬고 있다. (77) 역시 반 anti 중국 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조류)독감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덜 해롭다면 왜 (기사에서)공포감을 조성하는지에 대해 의문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온라인 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담화가 형성될 시에는 그에 대한 반작용이 감정에 대한 동조가 아닌 거부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질병이 처음 발생하고 그 후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행된 한국과 독일 기사의 제목을 통해 두 나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초기 담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담화 형성의 과정을 각각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한국의 기사에서 사용된 질병의 명칭을 통한 초기 코로나19 담화의 형성 양상



[도식 2] 독일의 기사에 사용된 질병의 명칭을 통한 초기 코로나19 담화의 형성 양상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는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통해 새로운 질병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지를 밝혀내고 그에 책임을 돌려 혐오와 같은 감정적 담화를 형성하는 반면 독일의 온라인 기사에서는 '새로운 바이러스', '폐렴/폐병',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병명을 사용함으로써 새로 발생한 병의 증상을 알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질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 환기시키고자 함을 볼 수 있다.

4.2. 문법적 차원

4.2.1. 문두성과 주제화 방식 비교

독일어와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주어와 목적어의 어순이 대칭적"(신효식 2013, 199-200)이라는 것이다.

(78) Ich habe ihn gefunden.
(78)' Ihn habe ich gefunden.
(79) 나는 그를 발견했다.
(79)' 그를 나는 발견했다.

위의 예시와 같이 독일어와 한국어에서는 (정형)동사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는 자유롭다. 이와 같은 독일어와 한국어에서 어순의 자유로움은 비단 주어와 목적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사, 접속사 등 다양한 문장 성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80) Er lernt jeden Mittwoch Deutsch.
(80)' Jeden Mittwoch lernt er Deutsch.
(81) 그는 매주 수요일 독일어를 배운다.
(81)' 매주 수요일 그는 독일어를 배운다.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 독일어와 한국어는 주어가 큰 위상을 가지지 못하는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의 특징 중 하나는 어순을 바꿈으로써 특정한 문장 성분이나 구 혹은 절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인데 독일어에서는 통사적으로 전역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언어 유형학적으로 주제중심형 언어인 한국어에서는 문두에서 강조 Fokussierung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두 언어 모두 문장의 처음에 오는 문장 성분을 강조하는 문두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담화 기능적 diskursfunktional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문장 성분이 문장의 제일 처음에 위치되는 것은 특정한 정보 효과를 야기할 수(신효식 2013, 203) 있다는 것이다.

독일어와 한국어는 이와 같이 담화 기능적 차원에서 문두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온라인 기사에서 이 문두성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82) Für Gesunde seien Masken und Mundschutz im Alltag unsinnig, bestätigt **der Vorsitzende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Infektiologie Bernd Salzberger**. (2020.3.3. Online Focus 기사내용 중)
(83) Aber braucht es die wirklich? Dass in Stuttgart derzeit kein

Mundschutz notwendig ist, stellt **Stephanie Köppinger, Pressesprecherin der Landesapothekerkammer Baden-Württemberg**, klar. (2020.2.12. Stuttgarter Zeitung 기사내용 중)

(84) **질병관리본부는**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보다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권고한다. **질본 관계자는** "휴지나 손수건은 잘 쓰지 않으면 침방울이 샐 수 있고 평소 휴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옷소매로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 (2020.2.4. 한국경제 기사내용 중)

(85)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있는 침방울이 눈, 코, 입, 피부에 묻을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의 점막에 붙으면 감염이 시작된다"고 했다. (2020.2.4. 기사내용 중)

독일 온라인 기사의 경우에는 특히 전문가나 공신력을 가지는 기관의 언급을 인용할 때 인용되는 내용이 전역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온라인 기사에서는 공신력을 가지는 기관이나 개인이 문두에 위치하고 인용되는 내용은 문장의 뒤에 위치된다. 이와 같은 문두성의 양상은 양국의 온라인 기사에서 위의 예시에서와 같이 특히 인용문장에서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두성이 담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독일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감염병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담화 생성자가 재구성하여 전달할 때 많은 경우 정보가 문두성을 차지했다. 문장성분 간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보가 문장의 제일 처음에 위치하는 빈도가 잦았는데 이는 담화 수용자로 하여금 발언 주체보다는 정보에 초점을 두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에서는 해당 정보를 발언하는 주체보다는 제공되는 정보에 가중치를 둔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정보를 발언하는 주체가 항상 문장의 처음에 위치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한국어는 독일어와 같이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로서 반드

시 주어라는 문장성분이 문두에 위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언 주체인 국가기관이나 전문가를 항상 문두에 위치시킴으로써 담화 수용자로 하여금 후술될 정보에 대한 신빙성을 보장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4.2.2. 행위의 주체의 생략 및 문장 구조 비교

앞서 독일어와 한국어는 모두 전역 혹은 문두에 특정 문장 성분을 위치시킴으로써 특정 정보를 강조시킬 수 있는 언어라는 담화 기능적 차원에서 두 언어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두 언어가 어순의 자유로움이라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문두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듯 독일어와 한국어는 행위의 주체의 생략 여부에 있어 통사적으로도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86) Am Freitagabend kehrten **mehrere Schülergruppen** aus dem Risikogebiet Südtirol nach Sachsen-Anhalt zurück, **sie** sollen vorsichtshalber zwei Wochen in Quarantäne bleiben. (2020.3.7. Frankfurter Allgemeine 기사내용 중)

(87)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 환자는** 4번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u>격리지침을 어기고</u> 아래층에 사는 처제 집에 <u>방문해 함께 식사했다</u>. (2020.2.20. 세계일보 기사내용 중)

행위의 주체는 능동태/능동형 문장에서 흔히 주어 자리에 위치한다. 독일어의 경우 문장 성분의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이기는 하지만 통사적으로 주어를 생략할 수는 없다. 주어를 생략하게 되면 그 문장은 비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86)과 같이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반복 혹은 공지시 등을 통해 주어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반면 한국어는 (87)에서와 같

이 주어의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된 주어는 문맥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 이러한 주어의 생략 현상은 앞 문장과 높은 응결성 Kohension을 가질 때 가능한데 이러한 한국어에서의 주어 생략은 오히려 “문장들 간의 응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신효식 2013, 198)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국어의 능동형 문장에서 주어의 생략은 주로 행위의 주체를 생략하는 것이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한국어의 주어 생략 현상은 응결성을 가져다주는 측면이 있지만 주어의 생략은 행위의 주체의 생략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에서 행위 주체의 생략 현상이 응결성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자주 등장한다.

(88) **정부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례정의를 확대하고 감시를 강화하여 감염의심에 대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정도의 대책으로 시민이나 의료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0.1.27. 케미컬뉴스 기사내용 중)

(88)의 기사내용의 일부는 크게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 문장에서는 주어는 ‘정부’로 표현되어 있고 이 주어는 ‘어떠한 내용을 밝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앞 문장에서는 주어와 행위의 주체가 일치한다. 뒷 문장에서 주어는 ‘목소리가’이고 동사는 ‘나오고 있다’이지만 주어인 ‘목소리’는 ‘나오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주어와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목소리를 나오게 하는 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문장에서는 행위의 주체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행위 주체의 생략은 (88)에서와 같이 능동형의 문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89)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뒤 중국 내 다른 도시를 통해 들어오

면서 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방문 및 체류 사실을 숨길 경우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다. (2020.2.4. BBC 코리아 기사내용 중)

(89)의 첫 번째 문장은 피동형로 이루어져 있다. 통사적으로는 문장에 필요한 필수 문장 성분을 채우고 있지만 우려를 제기한 행위의 주체는 드러나 있지 않다. (89)의 첫 번째 문장과 같은 문장 구조는 한국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에서 자주 발견된다(3.2.장 참조).

(90)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2차 검사시 양성 판정으로 바뀌는 사례들이 여럿 나오면서 이에 따른 **불안감도** 커졌다. (2020.2.7. 동아사이언스 기사내용 중)

(91)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자칫 다른 이들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다. 또 1차 검사 시 음성인 사람들 중 자가격리 해체되는 경우도 있어 우려하고 있다. (2020.2.7. 동아사이언스 기사내용 중)

(9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 17일 만에 발병한 환자(28번째 환자)가 나오면서, 최장 14일이라는 잠복기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0.2.11. 한겨레 기사내용 중)

(93) 정부가 '코로나19' 명칭에 '코로나' 단어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임을 명시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2020.2.13. 동아일보 기사내용 중)

한국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에서 행위의 주체가 생략되는 문장 구조는 (90), (91)에서와 같이 주로 불안과 걱정을 표현한 문장에서 그리고 (92), (93)과 같이 피동형으로 표현된 문장에서 주로 나타났다.

Ruth Wodak/Michael Meyer(2021)에 따르면 담화 전략에서 감정의 표현은 담화 생성자의 발화수반력을 조정함으로써 발화에 대한 담화 수

용자들의 인지의 정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90), (91)와 같은 문장 구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불안감',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담화 생성자는 자신이 생성한 담화에 대한 발화수반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행위의 주체((90), (91)에서는 감정을 느끼는 주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불안과 우려의 감정을 일반화하고 있으며 일반화를 통해 발화수반력은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92)와 (93)의 문장 구조는 한국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에서 주로 '(지적, 우려, 의문)이 제기되다', '~한 것으로 확인되다/해석되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서술적 전략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담화적 자질을 부여한다(Wodak/Meyer 2021). 그리고 이때의 담화적 자질은 담화 생성자로부터 나온 평가이다. 따라서 담화 생성자는 (92)와 같은 문장 구조를 통해 주로 지적이나 우려 혹은 의문 등을 제기함으로써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담화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체를 생략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담화를 생성하고 있다.

독일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에도 수동태 문장이나 담화 생성자의 주관적인 평가와 같은 서술 전략들은 발견된다.

(94) Die Genome der ersten zehn 2019-nCoV-Erreger, die in den vergangenen Wochen **von chinesischen Forschern** <u>sequenziert wurden</u>, stimmten zu 99,98 % überein. Da die Erreger von 9 verschiedenen Patienten stammten, **bedeutet** dies, dass das neue Virus erst vor Kurzem entstanden sein kann. (2020.1.31. aerzteblatt.de 기사내용 중)

(94)의 기사내용에서 동사 'sequenzieren(차례로 배열하다)'가 수동태로 표현되면서 주어가 'die(= die Genome(유전인자))'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

서 실제 'sequenzieren'을 행한 행위의 주체는 'von chinesischen Forschern (중국 연구진들에 의해서)'로 표현되었다. 능동태로 '...(중략), die chinesische Forscher in den vergangenen Wochen sequenzierten'인 문장을 수동태로 바꿈으로써 행위의 주체를 배경화 하며 행위의 주체 자체는 무표적 unmarkiert이게 되었지만 행위 주체를 생략하지 않음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문장에서 'bedeutet(의미하다)'라는 표현은 담화 생성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피전달 내용에 대한 담화 생성자의 해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94)의 두 번째 문장에서는 담화 생성자의 주관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수동태로 표현하거나 인용으로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피전달 내용에 대한 담화 생성자의 확신의 정도를 높이는 서술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확신의 정도가 결론적으로 담화 수용자로 하여금 피전달 내용을 객관적인 것으로 수용하게 한다.

물론 독일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에서도 행위의 주체가 생략된 수동태 문장이 발견된다.

(95) Bislang wurde angenommen, dass das neuartige Corona-Virus2019-nCoV hauptsächlich durch eine Tröpfchen-Infektion von Mensch zu Mensch übertragen wird. (2020.2.4. Focus 기사내용 중)

(96) Bestätigt wurden die Erkenntnisse der chinesischen Forscher auch von US-Kollegen: **Genetische Spuren** des neuen Coronavirus wurden auch im Stuhl eines 35-jährigen Mannes aus den USA gefunden, der kürzlich von einer Reise nach Wuhan zurückgekehrt war. (2020.2.4. Focus 기사내용 중)

(95)의 문장에서는 수동태 문장이 사용되면서 이에 대한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는 전달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이다. (96)의 문장에서도 수동태 문장에서 실제로 해당 내용을 발견한 행위의 주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Genetische Spuren(유전학적 흔적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의 온라인 기사를 통해 생성되는 코로나19 담화는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독일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에서도 담화 생성자의 유보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행위 주체의 생략 및 수동태 등의 문장 구조가 아닌 간접 화법 indirekte Rede를 통해서 나타난다.

(97) Die meisten Fledermausarten in der freien Natur befinden sich **laut Tan** derzeit im Winterschlaf. Dies spreche dafür, dass es wie bei SARS-CoV und MERS-CoV einen Zwischenwirt gegeben haben muss. (2020.1.31. aerzteblatt.de 기사내용 중)

(97)의 기사내용에서는 'spreche'라는 간접 화법을 통해 피전달 내용을 담화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앞선 (94)에서 직접 화법 direkte Rede를 통해 담화 생성자가 자신의 주관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97)에서와 같은 간접 화법의 사용은 담화 생성자가 피전달 내용 자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Vgl.조경화 2015). 간접 화법은 이처럼 담화 생성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정보의 출처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또한 정보 전달에 있어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7)의 'spreche'가 있는 문장에서는 피전달 내용의 정확한 출처를 파악할 수 없지만 앞 문장에서 'laut Tan(Tan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 전달 표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피전달 내용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독일과 한국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가 담화를 생성하는 방식을 문법적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코로나19 담화는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정

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코로나19 담화는 공신력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반면 담화 생성자의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관점, 태도 그리고 감정을 일반화를 통해 담화에 삽입시키고 있다.

4.3. 텍스트 구조 차원

온라인 기사 전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보았을 때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기사제목 Schlagzeile-리드 Leadlines[30]-기사내용 Inhalt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기사라는 텍스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헤드라인이다. 헤드라인은 앞서 살펴보았듯 그 자체가 온라인 기사의 담화적 특징으로도 구분될 수 있을 만큼 온라인 기사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과 한국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에서도 역시 헤드라인은 코로나19 담화 형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가 단지 한 국가에서만 감당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온라인 기사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중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매번 업데이트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의 입장에서 기사제목을 통해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 받는다는 의미도 존재하지만 어떠한 정보를 취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 역시 기사제목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기사에서 기사제목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의 과정에서 독일과 한국이 공통적으로 새로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특정 국가·국민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코로나19 담화를 형성하였지만 그 양상에 있어 차이를

30) 머리기사라고도 표현한다. 조국현(2020)에 따르면 리드는 “본문 기사의 주요 내용을 압축적·요약적으로 혹은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텍스트 종류”로 “1-3줄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리드는 수수께끼형으로 제시되는 기사제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앞선 4.1.절과 4.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담화 양상의 차이는 해당 담화를 형성하는 구조적인 틀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게 한다. 온라인 기사의 담화 생성에서 기사제목이 이와 같은 구조적인 틀의 역할을 한다면 코로나19 담화 양상은 기사제목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일까? 이번 장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담화 양상이 텍스트 구조에서도 드러나는지에 대해 기사제목과 필요한 경우 리드까지 살펴보면서 알아보기로 한다.

	독일 온라인 기사제목	한국 온라인 기사제목
1	Coronavirus: In Deutschland ist Panik völlig unangebracht (2020.1.27. Berliner Morgenpost)	우한 폐렴: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 발생...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 200명 넘어 (2020.1.20.)
2	Spahn zu Coronavirus: "Wir sind gut vorbereitet" (2020.1.27. ZDF) - 리드 유	'지구촌 확산 우려' 중국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정체는 (2020.1.21.)
3	Kaum Corona-Gefahr in Deutschland (2020.1.27. ZDF) - 리드 유	전세계 뒤덮은 '신종 코로나' 공포 (2020.1.23. 아시아경제)
4	Coronavirus: Wie Deutschland reagieren würde (2020.1.27. ZDF)- 리드 유	'우한 폐렴'은 일반 폐렴과 달라요?… "감기와 비슷한 증상" (2020.1.23. 연합뉴스)
5	Gesundheitsexperten sehen Deutschland auf mögliche Corona-Fälle gut vorbereitet (2020.1.27. Welt) - 리드 유	우한 폐렴에 '희귀 야생동물 섭취' 中 식문화 도마…뱀에서 전염 가능성 (2020.1.23. 동아일보)
6	Grippe schlimmer als Coronavirus: Spahn sieht Deutschland gut gewappnet (2020.1.27. n-tv)	'우한 폐렴'이 아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다. (2020.1.23. 뉴스톱)
7	Pandemie aus China: 7 Infos zum Coronavirus (2020.1.28. Laborpraxis)	'우한 폐렴', 중국 춘절 맞아 대확산 우려 (2020.1.23. 의사신문)
8	Infektionen in Deutschland: Die Grippe tötet hier Tausende, das Coronavirus bislang niemanden (2020.1.28. Spiegel)	의협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 벌써 570명, 우한 방문 자제하고 손씻기·기침 예절 필수" (2020.1.23. 메디게이트뉴스)
9	#JeNeSuisPasUnVirus: Coronavirus: Asiaten wehren sich gegen Anfeindungen (2020.1.29. Spiege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은? 설에 외부인 접촉 많아 '주의' (2020.1.24. 서울신문)

[표 3] 각 국가의 첫 확진자 발생일 전후로 발행된 온라인 기사의 제목

[표 3]을 통해 비교해볼 수 있는 양국의 코로나19 기사제목에서의 큰 차이는 각 국가의 코로나19에 대응에 사용된 어휘이다. 독일의 기사제목에서는 'Deutschland', 'wir', 'gut', 'vorbereitet'와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띈다. 그 외에도 'Panik(공포심)' 'Corona-Gefahr(코로나 위험)'과 같은 단어들이 'unangebracht(어울리지 않는)'과 'kaum(거의~않다)'와 같은 표현으로 부정되면서 독일의 코로나19에 대응한 자신감을 담화로 형성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담화는 앞선 담화 분석과는 다르게 'Spahn(독일의 보건부장관)'이나 'Gesundheitsexperten(보건전문가)'와 같은 공신력을 가지는 인물들을 언급하여 독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신뢰성을 강조하는 담화를 기사제목을 통해 형성한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독일의 대(對) 코로나19와 관련한 담화에서는 코로나19보다 'Grippe(독감)'이 더 심한 것(schlimmer)으로 표현됨으로써 그리고 'Tausende(수천명)'와 'niemanden(아무도 없는)'의 반대쌍 어휘의 사용을 통해 독일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을 담화 수용자에게 심어주는 담화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담화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 혐오에 반대하는 행동을 기사제목에 반영함으로써 반인종차별주의 Antirassismus 담화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온라인 기사제목에서는 주로 '우려', '공포', '주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담화가 형성되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예방수칙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담화는 예방수칙 준수의 담화로 전이되었다. 또한 한국의 9개의 기사제목 중 7개의 기사에서 여전히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질병명을 통해 해당 질병이 어디서 유래하였는지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다. 이 암시는 특정 국가 및 지역 차별적이고 혐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WHO 및 정부로부터 지역명이 들어간 질병명의 사용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질병 명명 방식을 통해 양산되던 특정 국가 및 지역의

차별 및 혐오의 담화는 코로나19의 원인균이 박쥐에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코로나19의 발생지로 알려져 있던 우한 화난수산시장에서 박쥐 등의 야생동물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국인들의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을 먹는 식습관과 연결되어 발병의 책임 귀속 담화로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담화는 중국인의 입국 금지 청원 등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해지자 한국 정부는 우한 폐렴 대신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고 이후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는 명칭 표기에 대한 담화가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우한 폐렴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완전히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이와 함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및 책임의 담화도 옅어지게 되었다[31].

독일의 온라인 기사에서 헤드라인은 대부분의 경우 헤드라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머리말 Oberzeile과 함께 노출된다. 이 머리말의 역할은 이른바 기사의 분류 Kategorisierung를 위한 것으로 대부분이 명사로 되어있다. [표 3]에 제시된 9개의 기사제목 중 2개 외 나머지 7개의 기사제목은 모두 이 머리말을 가지고 있다. 머리말은 인터넷 포털 상에서 대부분 콜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콜론 이하가 독일 온라인 기사의 헤드라인이 되는데 [표 3]에 있는 9개의 독일 온라인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6개는 완전한 문장으로, 2개는 명사구로, 그리고 나머지 1개는 종속접속사절 Subordin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독일어 온라인 기사제목은 대부분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1) 한국에서 중국과 중국인을 향한 혐오와 발병 책임에 대한 담화는 사실 단순히 질병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다. 2020년 2월 중순 34번 확진자가 일명 슈퍼 확진자가 되어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도화선이 되면서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책임 문제가 확산에 대한 책임 문제로 바뀌었고 확산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다시 2020년 5월 이태원발 확진으로 옮겨가면서 책임 전가의 대상이 바뀌게 되면서 점차 혐오와 책임 귀속에 대한 여론이 옅어지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2년을 넘어가고 있는 현재에도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더라면 WHO 등의 국제기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특정 국가·지역·인종에 대한 낙인 효과는 계속 존재했을 것이다.

이는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숨김없이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담화 생성자는 기사제목에서 어휘적으로는 의도된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문법적으로는 의도된 어휘를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담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 온라인 기사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문장으로 구성된 기사제목 1개, 동사구로 구성된 기사제목 1개 그리고 명사절로 구성된 기사제목 1개 외 6개의 기사제목이 명사로 끝나고 있다. 명사화는 주로 공간과 길이의 제약을 받을 때 사용되는 형식으로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자주 사용된다. 특히 기사제목에서의 명사화는 단지 동사의 줄임 정도로 간주되기 쉽다. 한국 기사에는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으레 한국 기사제목에서의 명사화는 '-하다' 동사를 삭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1번 기사제목에서 '첫 확진자 발생'은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의 줄임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명사화된 문장이 동사를 가진 원래의 문장과 그 의미가 같을 수 없다(최윤선 2014, 125). 최윤선(ebd.)에 따르면 "명사화 문장은 더 간결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더 단호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특히 명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략을 통하여 원 문장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변형되기도 한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명사화된 기사제목들 역시 간결하면서 단호한 의미를 전달한다. 특히 '우려'나 '공포'와 같은 감정과 관련한 표현은 명사화되어 단호하게 표현됨에 따라 담화 수용자들은 이러한 감정이나 느낌을 강제적으로 느껴야 할 것 같은 발화수반력을 가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온라인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과도한 명사화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 9번 기사제목에서 앞 문장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묻고 다음 문장에서는 설에 외부인 접촉이 많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우선 앞 문장과 뒷 문장이 호응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 문장에서의 '주의'에 대한 주체와 객체를 기사제목만으로 유추해야한다. 이와 같이 과도한 명사화가 기사제목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행위 주체뿐만 아니라 객체마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담화 생성자가 현실을 재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 내지는 어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4. 문화적 관점에서의 코로나19 담화 구성 비교

앞서 코로나19 발생 당시의 독일과 한국의 온라인 기사를 비판적 담화분석을 적용하여 어휘·문법·텍스트 구조 차원에서 시도해본 결과 두 나라 사이의 코로나19 담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차원 \ 국가		독일	한국
어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적대	공포의 대상
	차별 담화	아시아	중국
문법	주제화	코로나19 정보	공신력을 가지는 기관 및 개인
	행위 주체	드러남	숨겨짐
텍스트 구조	담화의 흐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신감	공포와 불안감 표출
		아시아에 대한 차별 → 차별 경계	중국에 대한 차별 → 차별적 인식에 대한 재고

[표 4] 독일과 한국의 온라인 기사의 어휘·문법·텍스트 구조 차원에서 분석을 통한 담화의 양상

어휘적·텍스트 구조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코로나19 담화의 차이는 독일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 적대감으로 담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고 한국에서는 공포감으로 담화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적대감으로 구성된 담화는 담화 수용자로 하여금 코로나19를 맞서 싸워야 하는 상대로 인식하게 하고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표하는 것으로 보인

다. 반면 한국에서는 공포감을 확산시켜 코로나19에 대응한 어떠한 행동을 암시하기보다는 새로운 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에 안주하게 하는 담화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적극성과 수동성의 차이를 Varadaraj Velamoor/Emmanuel Persad(2020)는 서양 문화에서는 수동성이 환영받지 못하는 반면 동양 문화에서는 코로나19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문화적인 차이로 해석하였다.

문법 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코로나19 담화 상의 차이에서도 역시 독일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앞선 독일과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의 문두성 비교를 통해 독일에서는 담화 관련한 정보성을 우선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정보에 대한 신빙성의 정도를 우선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장 구조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두 국가의 정보에 대한 가치의 비중은 두 국가의 사회 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국과 같은 사회 구조에서는 "국가 단위에서의 조치에 대한 통과나 사회 집단적인 태도 die landesweite Verabschiedung von Maßnahmen und Sanktion"(Barmeyer/Brede 2020)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위에서 아래로의 사회 Top-down-Gesellschaft'의 특징이다. 엘리트들이 이끄는 권위적인 Top-down 사회 구조에서는 정부나 국가기관과 같은 공신력을 가지거나 특정 분야에 전문가인 집단 혹은 개인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에 있어 개개인의 판단이나 선택보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결정이 훨씬 영향력을 미친다. 반면 독일은 '아래에서 위로의 사회 Bottom-up-Gesellschaft'로 행정기구나 정치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에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를 조직한다[32].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는 정부 기관이나 전문가가 영향력을 가지기보다는 개개인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32) https://buergerbeteiligung.potsdam.de/content/bottom-prozesse-aus-der-zivilgesellschaft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힘을 가진다. 이와 같은 사회 구조적 차이는 흔히 집단주의 Kollektivismus와 개인주의 Individualismus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가 두 국가의 코로나19 담화 구조의 차이에 깊게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문화 차이는 코로나19 대응책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Maskenpflicht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독일에서는 2020년 9월 말경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20년 10월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시행했는데 이 무렵의 기사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등장한다.

(98) Mann verweigert Corona-Maske und schlägt Mitarbeiter in Krumbacher Bank (2020.10.6. Mittelschwäbische Nachrichten 기사제목)

(99) AfD klagt und verstößt gegen Maskenpflicht im Bundestag (2020.10.7. Aerzteblatt 기사제목)

(100) Hotel heißt Gäste ohne Maske willkommen - Polizeieinsatz (2020.10.7. Spiegel)

(101) An Maske erinnert - Supermarkt-Kunde greift zur Axt und schlägt zu (2020.10.11. die Stimme Berlins)

(102) "Querdenken"-Demo in Nürnberg: 242 Teilnehmer ohne Maske (2020.10.11. Nordbayern 기사제목)

(103) „Querdenker“ protestieren gegen Corona-Maßnahmen (2020.10.18. der Tagesspiel 기사제목)

반면 한국에서는 2020년 11월 13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 시행을 위해 2020년 10월부터 한 달간 유예기간을 가지는 동안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 건수는 많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데모 등의 직접적인 표출로 나타나는 사례는 1건뿐이었다.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독일과 한국의 극명한 차이는 새로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로 나타나는데 독일에서는 2020

년 12월 22일 당해 최다 확진자인 36,153명이 나왔고 2021년 1월 13일에는 코로나19 기간 중 1,207명으로 최다 사망자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24일에 1,237명으로 당시 최다 확진자가 나왔고 2021년 1월 7일 당시 최다 사망자 수는 35명이었다. 당시의 이와 같은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독일과 한국 내에서의 반응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투영된 확진자 및 사망자의 뚜렷한 차이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연합뉴스[33] 2020에서 재인용)에서는 서양인들은 규율을 따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처와 규정을 잘 따르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Barmeyer/Brede(2020) 역시 독일과 한국의 코로나19에 대응에 대해 마스크 착용 Tragen von Masken 사례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차이로 이해하였는데 이 차이는 단지 집단주의 vs 개인주의의 한 차원에서만 바라보기보다는 다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 대해 정부 지침의 준수 여부와 더불어 서양인들은 자기희생에 익숙하지 않지만 동양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주지하였다(연합뉴스 2020에서 재인용). 마스크 착용 역시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자기희생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와 더불어 개인의 자유 Freiheit를 중시하는 지향성 Direktivität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어 하지 않는 동양의 문화는 집단주의와 함께 모두의 안전 Sicherheit을 우선시하는 참여 Partizipation의 문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Barmeyer/Brede 2020). 그리고 이러한 서양과 동양의 문화 차이는 각각 독일과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과 반응 그리고 대응책의 결과에 투영된다.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동선을 바탕으로 (밀접)접촉자를 파악하여 연락을 하는 작업을 시행하는데 Bauer는 이를 한국의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평가한다. 반면 독일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동선 확인과 이를 통한 (밀접)접촉자 분류를 개인정보보

33)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1130300009 (2020.10.21.)

호 Datenschutz의 침해로 보고 이것이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라고 여긴다(ebd.에서 재인용).

마스크 의무 착용과 더불어 또 다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 Impfung이슈에서도 앞서 분석된 독일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점과 유사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독일의 접종 시작일인 2020년 12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접종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를 검색하면 첫 100건의 기사 중 2건이 접종과 죽음의 연관성에 대해 다룬 기사제목이고 그 외에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의 접종 가능 여부, 백신의 종류 등 접종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제목이 다수인데 그 중에서도 접종을 독려하는 기사제목이 다수 보인다.

(104) 87-Jährige aus Großräschen erhält als erste in Brandenburg Impfung (2020.12.27. rbb24 기사제목)

(105) Impfstart in Europa: Gemeinsam gegen das Virus (2020.12.27. Tagesschau 기사제목)

(106) Warum es sinnvoll ist, 101-Jährige zuerst zu impfen (2020.12.28. rbb24)

(107) Eine Pflegerin über ihre Covid-Impfung: "Ich war total überrascht, wie viele sich impfen ließen" (2020.12.28. Stern 기사제목)

(108) Einlass nur für Geimpfte (2020.12.29. Zeit 기사제목)

(109) Verfassungsrechtler zu Sonderrechten nach Impfung "Natürlich kann man Kreuzfahrten nur für Geimpfte anbieten" (2020.12.29. LTO 머리말과 기사제목)

(110) "Impfen ist der Schlüssel raus aus dieser Pandemie" (2020.12.30. Bundesregierung 기사제목)

(111) Oberärztin schlägt Alarm: „Wir wollen die Impfung, und zwar schnell!“ (2020.12.31. Welt 머리말과 기사제목)

독일에서는 고령의 나이를 언급하거나 접종에 대한 개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보도 기사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제목을 노출시킨다.

한국에서도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된 2021년 2월 26일 이후로 일주일 동안의 온라인 기사를 검색했을 때 첫 100건에 대해서는 접종 현황, 백신 종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기사제목이 자주 노출되고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제목도 확인된다. 그러나 독일의 온라인 기사의 제목과 다른 점은 접종과 이상반응 혹은 사망과의 관계를 언급한 기사제목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112) 백신접종 이상반응 15건…"선정적 보도, 정치권 악용 안돼" (2021.2.27. 한국경제)
(113) [인터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112명" 의미는?…엄중식 교수 (2021.2.28. JTBC)
(114)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란…"접종 2시간내 호흡곤란·두드러기" (2021.3.3. 매일경제)
(115) AZ백신 접종 후 2명 사망…인과관계는 아직 확인 안돼 (2021.3.3. TBS)
(116) 서울119, 백신접종 첫날 경미한 이상반응 보인 11명 이송 (2021.3.3. 한국경제)
(117) 코로나 백신 접종뒤 사망 2명…일본, 홍콩서도 사망 발생 (2021.3.3. 서울신문)
(118) 대전서 백신 맞은 20대 여성 숨져…보건당국 인과관계 조사 (2021.3.4. 한겨레)
(119) 코로나 백신 접종후 사망 발생...해외 사례 살펴보니 (2021.3.4. Medical Times)

이 외에도 접종에 의한 사망 혹은 이상반응을 노출한 기사제목은 4건 더 존재한다. 독일 온라인 기사의 제목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백

신 접종 이슈에 대해 '접종 독려' 담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앞선 코로나19 발생 때와 유사하게 '접종에 대한 불안' 담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담화 구성의 차이는 앞선 코로나19 발생 당시 독일과 한국의 담화 구성의 차이와 유사점을 가진다. 그러나 접종 여부에 대한 대중의 의식은 이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7]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접종 의무가 필요한가?"에 대한 독일인 26,710명의 답변[34]

[그림 7]에서 접종 의무 Impfpflicht의 필요성에 대한 독일인의 응답을 보면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의 차이는 크지 않다. 독일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접종이 의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반에 조금 미치지 않는 독일인들은 접종 의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독일 대중의 의식은 접종률에서도 드러난다.

34) 출처: ster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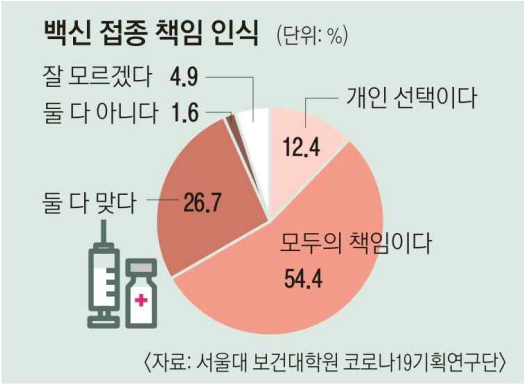
[그림 8-1,8-2] 독일과 한국의 백신 1회 접종률과 접종완료율[35]

[그림 8-1,8-2]에서 2021년 11월 3일 기준 독일의 접종률 중 1차 접종률은 69.5% 그리고 2차까지 접종 완료율은 66.9%이다. 약 두 달 후인 2021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독일의 백신 접종률은 1차가 74.1%, 2차가 71.1% 그리고 추가 접종이 38.5%인데 두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접종률의 상승률은 1차와 2차 모두 5% 내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1년 11월

35) 독일은 2021년 11월 3일 기준, 한국은 2021년 11월 4일 기준 (출처: 구글 검색)

4일 기준([그림 8-2] 참조)으로는 1차 접종률이 80% 그리고 2차 접종 완료율이 75.5%였다가 2021년 12월 30일에는 1차가 85.4%, 2차가 82.2% 그리고 추가 접종률이 34.2%로 1차에서는 접종률의 상승률이 독일과 큰 차이가 없지만 2차에서는 큰 차이가 드러난다. 이는 백신 접종의 시작일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한국은 독일보다 백신 접종 시작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 기간 대비 접종 인구수에 있어 훨씬 접종률이 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현재까지도 총 인구수의 70% 정도만 백신 접종을 한 반면 한국은 85%가 백신을 접종하였다.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접종에 대한 두려움'의 담화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의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9] 한국의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책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36]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절반보다 약간 높게 나온다. 반면 백신의 접종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은 12% 정도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견과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견 모두 옳다는 유보적인 답변 또한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

36) 출처: 그림 참조

견까지 포함하면 백신접종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한국에서 지배적이다. 반면 독일도 앞선 [그림 7]에서 (백신)접종 의무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답변이 절반보다 약간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반대 입장 또한 40%로 비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독일과 한국의 백신접종에 대한 책임 인식의 차이 역시 독일의 개인주의 및 자유를 지향하는 문화와 한국의 집단주의 및 모두의 안전을 위한 참여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5. 외국어교육으로서 독일어에의 시사점

독일과 한국의 코로나19 담화의 비교를 통한 양국 간 문화적 차이의 재발견은 한국에서의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Deutsch als Fremdsprache (이하 DaF)분야에도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독일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는 새로운 독일어 학습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이미 다루어져 있듯 온라인 기사와 같은 보도 텍스트는 시의성 및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매체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허남영/성지혜(2018)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학습 방식에서 벗어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은 학습자에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에 있어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코로나19 역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시의 적절한 주제이며 코로나19 이슈 내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 안에서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슈를 다룬 독일 온라인 기사를 독일어 수업에서 교육 매체로 활용하였을 때 특정한 학습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어휘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학습 방식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던 새로운 어휘를 익힐 수 있는데 이러한 어휘들이 일상생활에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교과서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한 독일어

를 배운다는 인상보다는 실제적인 독일어를 학습함으로써 습득한 어휘를 실제 독일어권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학습자 내면적으로는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외면적으로 교수법적 차원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풍부한 어휘력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20) ...(중략) Eine Familie aus dem Landkreis Traunstein in Bayern ist nach der **Infektion** mit dem Coronavirus Sars-CoV-2 inzwischen gesund aus dem Krankenhaus in Trostberg entlassen worden. Alle Familienmitglieder seien **geheilt** und nicht mehr **ansteckend**, teilte die Leitung der Kliniken Südostbayern mit. Die Eltern hätten das Krankenhaus mit ihren Kindern schon am Freitag verlassen, hieß es. Vor allem für die Kinder sei die **Quarantäne** psychisch stark belastend gewesen. ...(중략) (2020.2.17. Spiegel 기사내용 중)

(121) ...(중략) 17. Februar 2020. Mehr als 71.000 Menschen in 27 Ländern sind nach **aktuell**em Stand mit dem Coronavirus **infiziert** worden. Noch immer berichten die Medien regelmäßig von neuen **Fällen**. ...(중략) (2020.2.17. Berlin Institute of Health 리드 중)

위의 두 개의 예시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코로나19와 관련한 독일의 온라인 기사들에서는 기존의 독일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는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die Infektion(감염)', 그와 비슷한 표현인 'ansteckend (감염시키는/감염성의)'와 같은 어휘부터 'heilen(낫다/치유하다)', 'die Quarantäne(격리)'와 같은 어휘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한국의 온라인 기사에서 매번 나오는 표현인 만큼 독일 온라인 기사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현재까지도 일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독일어 학습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온라인 기사

라는 학습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한 어휘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어휘를 익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여러 코로나19 온라인 기사를 접함으로써 Infektion의 동사형인 'infektieren(감염시키다)'이나 ansteckend의 동사형인 'anstecken(감염시키다)'와 'sich anstecken(감염되다)', 'die Ansteckung(감염)'과 같은 파생 단어들도 추가적으로 학습 가능하게 되면서 어휘력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121)과 같은 기사를 통해 기존에 '경우'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던 'der Fall[37]'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과 관련하여서는 '확진자 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익히게 되는데 교과서적인 학습 방법과는 달리 새로운 어휘를 실제 일상생활과 관련한 기사의 맥락 안에서 학습하게 됨으로써 어휘의 실제적 활용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데 이는 단지 어휘를 외우기만 하는 학습 방식에서 가졌던 한계를 보완해줄 학습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적 측면에서도 온라인 기사의 교육 매체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된다. 허남영/성지혜(2018)는 보도 텍스트가 문형 구조 및 문법 파악에 용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독일어 학습자들은 독일어를 배우는 시간에 비례하여 점차 고급 문법을 익히게 된다. 독일어 학습자들에게 있어 익히기 어려운 문법은 KonjunktionⅠ(이하 접속법 Ⅰ식)과 KonjunktionⅡ(이하 접속법 Ⅱ식)이다. 독일어 학습자들은 이 두 문형을 배울 때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접속법 Ⅰ식을 간접 화법으로 접속법 Ⅱ식을 가정 및 추측 혹은 공손한 표현으로 알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형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이러한 문형 및 문법 학습을 통해서는 문법을 단기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습자가 품고 있는 접속법 Ⅰ·Ⅱ식이 실제로 독일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독일어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을 허무는 것을 어렵게 한다.

37) 복수형 die Fälle

(122) Bundesgesundheitsminister Jens Spahn sagte am Mittwoch, es **gebe** in China womöglich abseits der offiziellen Statistik Tausende weitere Infizierte, die aber nicht erfasst würden, da sich nur auf Fälle mit symptomatischem Verlauf **konzentriert werde**. (2020.2.11. DW)

그러나 (122)과 같이 기사 내용을 통해 접속법 Ⅰ식과 Ⅱ식이 실제로 독일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접하게 된다면 독일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문법에 대한 어려움과 문법의 실제 활용에 대한 의구심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이 독일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기사는 어휘 및 문법 습득의 차원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 내용의 측면에서 하나의 교육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비롯한 전자 기기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학습 도구로서의 가능성 또한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요즘 독일어 문법 수업을 위한 교수법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과 같은 온라인 매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업 방식에 독일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가 교육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 코로나19 온라인 기사를 통해 독일어 학습자들의 독일어 지식 및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대해 논의해보았지만 DaF는 단지 언어 습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일 및 독일어권의 지역사정 Landeskunde를 학습함으로써 독일어권에 대한 문화를 습득하는 것 또한 언어습득연구, 언어교수연구와 더불어 DaF 내에서 독립된 학문 중 하나이다(Vgl. 유수연 2018). 특히 문화의 습득이 단지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문화와 언어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외국어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상호문화 의사소통능력 향상에는 독일과 한국의 코로나19 온라인 기사의 담화분석을 시행한 이 연구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2021년 11월 10일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 196명을 기록하였을 때 당시 확진자 수가 2천 425명이었던 한국에서는 독일의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독일에서도 역시 한국의 정부에 의한 밀접 접촉자 동선 확인 등의 방역 체계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같은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을 거치면서도 독일과 한국 두 나라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수치들은 판이하게 달랐다.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점에서 출발했다. 똑같이 일상이 전염병에 위협받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두 나라가 보여주는 상이한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문화의 차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 연구는 두 나라 간의 문화 차이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어휘와 문법 그리고 텍스트 구조의 분석 및 비교를 통해서 발견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현재 언어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닌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문화 차이를 공유할 수 있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가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후로도 이와 같은 연구는 계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비판적 담화분석을 연구방법론으로 사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담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력이 큰 온라인 기사라는 매체가 만들어내는 코로나19 담화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어휘적 측면에서나 문법적 측면에서나 어휘 사용의 분포나 문장 구조의 빈도 등을 양적으로 도출해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일어 학습 및 교육에 있어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보다 상세한 학습 모델 설계나 교수법 등에 대한 제안이 부족하다. 기술 발전으로 나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상호문화적인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즘과 같은 시대에 언어와 외국어교육 분야는 보다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현석,강희숙,박경래,박용한,백경숙,서경희,양명희,이정복,조태린&허재영(2014):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글로벌콘텐츠.

강현석,김용진,김혜숙,박준언,백경숙,이원표&채서영(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김백기&강병창(2020): 실제의 텍스트 안에 나타난 간접화법의 구성적 특성. *독일어문학*, *91*, 43-61.

김태종(2020):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 19 언론보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457-466.

김해연(2020): 한국 사회언어학에서의 담화분석 연구. *사회언어학*, *28*(4), 1-28.

렌케마, 얀(1997): 담화연구의 기초(이원표 역). 한국문화사.

문규원(2006): TV뉴스의 담화분석 - 의도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주현(2020):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 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4(4), 40-85.

서경희&김규현(2019): 미디어 담화의 비판적 담화분석: 동남아 이주민 기사를 중심으로. *담화와인지*, 26(3), 101-128.

손달임(2020): 코로나 19 관련 뉴스 보도의 언어 분석-헤드라인에 반영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 137-166.

송해룡(2012): 위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공론장.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송해룡(2017):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쟁점과 과제. 한국학술정보.

신문적,왕림&김진해(2020): 한· 중 코로나 19 관련 신문기사의 비판적 담화 분석-의료진 및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57*, 97-129.

워닥&메이어(2021): 비판적 담화 연구의 방법들(김현강, 신유리, 유희재, 김주성, 심주희, 공나형, 박지현, 이주희, 진산산, 당기, 조태린 역). 경

진출판.
유수연(2018): 독일 지역사정과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 습득. *독어교육*, *72*, 29-51.
이성만(2010): 텍스트에서 담화로-텍스트언어학의 확장. *텍스트언어학*, 29, 315-340.
이재원(2008): 신문기사 제목과 본문사이의 텍스트언어학적 전략들. *언어와 언어학*, *41*, 185-204.
이현정(2012): 1991~ 2010 년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우울증 담론의 변화와 그 문화적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45(1), 45-88.
장윤상(2009): 상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DellHymes, William Labov, 그리고 JohnGumperz 의 사회언어학 특징 비교 분석. *사회언어학*, *17*(1), 33-60.
조경화(2015): 독일어와 한국어의 인식양태와 증거성에 관한 언어유형론적 연구. *독어교육*, *64*, 49-73.
조국현(2020): 독일 온라인신문의 기사제목과 리드에 담긴 '코로나 담화'의 분석. *독어교육*. 78, 79-101.
진나영&정정주(2018): 한국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 의미망 비교연구. *언론과학연구*, *18*(2), 222-262.
최윤선(2014): 비판적 담화분석 - 담화와 담론이 만나는 장. 한국문화사.
표시영(2020): 한국 공영방송의 '코로나 19'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 KBS< 뉴스 9> 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112-122.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언론수용자조사.
한경임(2019): 사회언어학의 이해. 리북.
함승경,김혜정&김영욱(2021): 코로나 19 언론보도 경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슈 주기 및 언론사 정치적 지향에 따른 주제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적용. *한국언론학보*, *65*(1), 148-189.
허남영&성지혜(2018): Deutsche Welle를 활용한 독일어 교수-학습 모형 1. *독일언어문학*, 82, 115-134.

홍정화(2013):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1), 223-268.

ANTOS, G.&RADEISKI, B.(2009): Kein Grund zur Panik? Die Vogelgrippe und der mediale Angst-Diskurs. In: DISKURSE ALS MITTEL UND GEGENSTÄNDE DER GERMANISTIK, 113-126.

Barmeyer, C.& Brede, J. R.(2020): Kulturbedingte Unterschiede mit Blick auf eine weltweite Krise: eine Analyse zum Umgang mit dem Coronavirus in unterschiedlichen Ländern. *Philologie im Netz, PhiN-Beiheft*, 24, 59-75.

Bettinger, P.(2020): Materialität und digitale Medialität in der erziehungswissenschaftlichen Medienforschung: Ein praxeologisch-diskursanalytisch perspektivierter Vermittlungsversuch. *MedienPädagogik: Zeitschrift für Theorie Und Praxis Der Medienbildung*, 53-77.

Daube, D.&Ruhrmann, G.(2021): Einführung zur Qualität von Medizinjournalismus und erste Einschätzungen zur COVID-19-Berichterstattung. *Bundesgesundheitsblatt-Gesundheitsforschung-Gesundheitsschutz*, *64*(1), 3-11.

Huynh, T. L. D.(2020): Does culture matter social distancing under the COVID-19 pandemic?. *Safety Science*, 130, 104872.

Heimerl, B.(2020): Das Coronavirus. In *Forum der Psychoanalyse, Springer Medizin,* 36(3), 319-331.

Jäckle, M.(2009): Schule M(m)acht Geschlechter.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Jäger, M.&Jäger, S.(2007): *Deutungskämpfe: Theorie und Praxis kritischer Diskursanalyse*. Springer-Verlag.

Kovacic, L.(2021): Alte Strukturen - Neue Probleme: Die Verwendung alter rassistischer Feindbilder im Corona-Virus-Diskurs. *Wiener*

Linguistische Gazette(WLG), 88, 41-51.

Loss, J., Boklage, E., Jordan, S., Jenny, M. A., Weishaar, H.&El Bcheraoui, C.(2021): Risikokommunikation bei der Eindämmung der COVID-19-Pandemie: Herausforderungen und Erfolg versprechende Ansätze. *Bundesgesundheitsblatt-Gesundheitsforschung-Gesundheitsschutz*, 1-10.

Pollak, A.(2002): Kritische Diskursanalyse - ein Forschungsansatz an der Schnittstelle von Linguistik und Ideologiekritik. *Zeitschrift für angewandte Linguistik*, *36*(8), 33-48.

Reisigl, M.(2009): Zur Medienforschung der "Kritischen Diskursanalyse". *Navigationen-Zeitschrift für Medien-und Kulturwissenschaften*, *9*(2), 43-78.

Schulze, K., Bock, N., Flörchinger, V., Anja, K., Merkes, S. T.&Voss, M.(2021): Die COVID-19-Pandemie aus Sicht der Bevölkerung im Sommer 2020: Ergebnisse einer Bevölkerungsbefragung. *KFS Working Paper*, 19, Berlin.

Schwarz-Friesel, M.(2015): Metaphern und ihr persuasives Inferenzpotenzial. In *Metapher und Metonymie.* 143-160. De Gruyter(A).

Ullrich, P.&Keller, R.(2014): Comparing discourse between cultures: A discursive approach to movement knowledge. In: *Conceptualizing culture in social movement research*, Palgrave Macmillan, London, 113-139.

Velamoor, V.&Persad, E.(2020): Covid-19: Cultural perspectives. *Asian Journal of Psychiatry*, 53, 102439.

Warnke, I. H.&Spitzmüller, J.(2008): Methoden und Methodologie der Diskurslinguistik - Grundlagen und Verfahren einer Sprachwissenschaft jenseits textueller Grenzen. In: *Methoden der Diskurslinguistik*. de

Gruyter, 3-56.
Weingart, B.(2004): Viren visualisieren: Bildgebung und Popularisierung. *VIRUS! Mutationen einer Metapher*, 97-130.
WHO(2020): Critical preparedness, readiness and response actions for COVID-19,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1511/Critical%20preparedness%20readiness%20and%20response%20actions%20COVID-10%202020-03-22_FINAL-eng.pdf?sequence=1&isAllowed=y

<인터넷 사이트>
구글 http://www.google.com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
JHU CSSE COVID-19 Data -COVID-19 Dashboard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at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gisanddata.maps.arcgis.com/apps/dashboards/bda7594740fd40299423467b48e9ecf6
e-나라지표 index.go.kr
WHO https://www.who.int

[부록] 논문에 인용된 온라인 기사 리스트

(1), (4), (6)
https://www.dw.com/de/mysteriöse-krankheit-in-china-entdeckt/a-51844491
(2)-(3), (5)
https://www.welt.de/wissenschaft/article204701708/27-Erkrankte-identifiziert-Mysterioese-Lungenkrankheit-in-China-ausgebrochen.html
(7)-(9)
https://www.sueddeutsche.de/gesundheit/lungenentzuendungen-wuhan-china-1.4745335
(10)-(11)
https://www.welt.de/politik/ausland/plus205283663/Angst-vor-dem-Coronavirus-Schlachtfeld-Wuhan.html
(12)-(13)
https://www.dw.com/de/coronavirus-ist-weiter-auf-dem-vormarsch/a-52152632
(14)-(16)
https://www.dw.com/de/erster-coronavirus-fall-in-deutschland-best%C3%A4tigt/a-52168989
(17), (20)
https://m.newspim.com/news/view/20191231000611
(18)-(19), (2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22938.html
(22), (24)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64
(2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9/2020012902349.html

(25)
https://m.newspim.com/news/view/20200128000871
(2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9/2020012902589.html
(27)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33357
(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051000083
(29), (34)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122400083
(3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24048.html
(3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5500163
(32), (35)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23653083
(3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89684#home
(36)
http://www.pmnews.co.kr/100899
(37)-(3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31/2020013101114.html
(39)-(45)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120/99329823/1
(46)-(47)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8135200502
(48)-(49)
https://www.spiegel.de/gesundheit/diagnose/wuhan-zentralchina-meldet-mysterioese-lungenkrankheit-a-1303225.html

(50)-(5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3/2020010301395.html
(52)
https://www.bbc.com/korean/news-51165909
(53)
https://www.tagesspiegel.de/gesellschaft/panorama/neues-virus-in-china-coronavirus-von-mensch-zu-mensch-uebergesprungen/25453588.html
(54)
https://www.zdf.de/nachrichten/heute/neues-virus-lungenkrankheit-china-infektion-100.html
(55)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001062124015
(56)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1131521001#c2b
(57)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00121/99338380/1
(58)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179651074
(59)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8100074
(60)
https://m.khan.co.kr/world/china/article/202001231831001#c2b
(6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5500029
(68)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3833
(69)
https://www.insight.co.kr/news/265028

(70)
https://www.welt.de/wissenschaft/article204701708/27-Erkrankte-identifiziert-Mysterioese-Lungenkrankheit-in-China-ausgebrochen.html
(71)
https://www.aerztezeitung.de/Medizin/Neues-Coronavirus-aehnelt-SARS-Viren-aus-Fledermaeusen-405626.html
(74)
https://www.fr.de/meinung/coronavirus-todesvirus-land-fledermaus-esser-13513586.html#idAnchComments
(82)
https://www.focus.de/gesundheit/news/kunden-zahlen-mondpreise-fuer-atemmasken-dabei-bringen-sie-gar-nichts_id_11705676.html
(83)
https://www.stuttgarter-zeitung.de/inhalt.coronavirus-stuttgarter-apotheke-faellt-mit-ungewoehnlicher-maske-auf.2621e61c-e65b-4bc6-9a47-23bfd27c518c.html
(84)-(8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0401161
(86)
https://www.faz.net/aktuell/gesellschaft/gesundheit/epidemie-mehr-als-600-coronavirus-infizierte-bundesweit-16667950.html
(87)
http://m.segye.com/view/20200220511073
(88)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
(89)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1367668
(90)-(91)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34157

(92)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27884.html
(93)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213/99665899/1
(94), (97)
https://www.aerzteblatt.de/nachrichten/109051/Genom-Analysen-klaeren-Herkunft-von-2019-nCoV
(95)-(96)
https://www.focus.de/wissen/natur/coronavirus-ist-wohl-auch-ueber-kot-uebertragbar-forscher-weisen-spuren-nach_id_11627049.html
(98)
https://www.augsburger-allgemeine.de/krumbach/Krumbach-Mann-verweigert-Corona-Maske-und-schlaegt-Mitarbeiter-in-Krumbacher-Bank-id58278811.html
(99)
https://www.aerzteblatt.de/nachrichten/117205/AfD-klagt-und-verstoesst-gegen-Maskenpflicht-im-Bundestag
(100)
https://www.spiegel.de/panorama/justiz/bamberg-hotel-heisst-gaeste-ohne-maske-willkommen-polizeieinsatz-a-ae62be0c-5399-4717-8ade-d404a473a54b
(101)
https://www.bz-berlin.de/deutschland/zwickau-sachsen-an-maske-erinnert-supermarkt-kunde-greift-zur-axt-und-schlaegt-zu
(102)
https://www.nordbayern.de/region/nuernberg/querdenken-demo-in-nurnberg-242-teilnehmer-ohne-maske-1.10507545
(103)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viele-teilnehmer-ohne-maske-in-dort

mund-querdenker-protestieren-gegen-corona-massnahmen/26286354.html
(104)
https://www.rbb24.de/panorama/thema/2020/coronavirus/beitraege_neu/2020/12/brandenburg-impfstart-ursula-nonnemacher-pflegeheim.html
(106)
https://www.rbb24.de/panorama/thema/2020/coronavirus/beitraege_neu/2020/12/101-jaehrige-impfen-sterblichkeit-verlorene-lebensjahre-ethik.html
(107)
https://www.stern.de/gesundheit/eine-pflegerin-ueber-ihre-covid-impfung---ich-war-total-ueberrascht--wie-viele-sich-impfen-liessen---9547340.html
(108)
https://www.zeit.de/gesellschaft/2020-12/corona-impfung-debatte-freiwillig-pflicht-herdenimmunitaet-impfpass-impfverweigerer-eigenverantwortung
(109)
https://www.lto.de/recht/hintergruende/h/corona-privilegien-sonderrechte-impfung-indirekte-impfflicht-verfassungsrecht-ungleichbehandlung-sachlicher-grund-regelbefolgungsargument/
(11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coronavirus-schutzimpfungen-1833396
(111)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223574416/Oberaerztin-schlaegt-Alarm-Wir-wollen-die-Impfung-und-zwar-schnell.html
(112)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2791507

(113)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4328
(11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06431/
(115)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418077&typ_800=6
(116)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038255Y
(117)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3011024
(118)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85378.html
(119)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39161
(120)
https://www.spiegel.de/wissenschaft/medizin/coronavirus-in-bayern-familie-geheilt-aus-trostberger-klinik-entlassen-a-ca9b9860-59d6-402c-a1b4-9cc032ebf2be
(121)
https://www.bihealth.org/de/aktuell/wie-ist-die-aktuelle-lage-mit-dem-neuen-coronavirus
(122)
https://www.dw.com/de/lungenkrankheit-hat-eigenen-namen-covid-19/a-52344408

Zusammenfassung

Vergleichende Untersuchung der Diskursbildung in koreanischen und deutschen Online-Artikeln

- mit Fokus auf Artikeln zu COVID-19

JANG Yejin
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German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eutzutage erhalten wir über die Medien eine Vielzahl von Informationen, aber diese Tendenz ist noch stärker ausgeprägt, wenn es um Risikofaktoren geht, die unser tägliches Leben bedrohen, wie zum Beispiel das aktuelle COVID-19 Virus. Insbesondere da heute Informationen über elektronische Geräte wie Smartphones einfacher

und schneller abgerufen werden können, ist der Anteil von Online-Artikel hoch, in denen Risiken gemeldet werden. Darüber hinaus weisen Online-Artikel aufgrund ihrer Eigenschaft als Titelschrift auf einer Nachrichtenplattform, den so genannten Internet-Portalen, eine andere Struktur der Diskursbildung als andere Medien auf. Basierend auf diesen Fakten untersucht diese Studie, wie sich COVID-19, das unser tägliches Leben bedroht, als Diskurs in deutschen bzw. koreanischen Online-Artikeln bildet.

Deutschland und Südkorea weisen signifikante Unterschiede bei der Zahl der COVID-19-Fälle, Todesfälle und Impfraten auf. Diese Tatsache legt nahe, dass Deutschland und Korea unterschiedliche Ansichten zu COVID-19 haben, und diese auf die Medien, die als Fenster fungieren, wenn wir uns unbekannte Dinge ansehen, wie in diesem Fall Online-Artikel, projiziert werden kann. Daher wird in dieser Studie unter der Annahme, dass die unterschiedlichen Sichtweisen zwischen von Deutschland und Korea einen Unterschied im Diskurs zu COVID-19 erzeugen, der Aspekt der Formation des COVID-19-Diskurs durch sprachlichen Ausdruck, welcher in den Online-Artikeln verwendet wird, mit Fokus auf Wortschatz und Grammatik analysiert. Als sprachanalytische Methode zum Vergleich der Diskursbildungsmuster in beiden Ländern wird die kritische Diskursanalyse eingesetzt, die den Diskurs als soziale Praxis betrachtet. Die kritische Diskursanalyse, die häufig in Studien verwendet wird, und die den von den Medien generierten Diskurs analysieren, wurde als geeignete Forschungsmethode für diese Studie bewertet, um den sprachlichen Ausdruck zu analysieren, der in Online-Artikeln verwendet wird. Ausgehend von den durch die kritische Diskursanalyse abgeleiteten Aspekten der COVID-19-Diskursbildung

in deutschen und koreanischen Online-Artikeln untersuchen wir als nächstes, ob es diskursanalytisch feststellbare kulturelle Unterschiede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gibt und falls Unterschiede vorhanden sind, dann wird in dieser Studie offenbart, woher die Unterschiede kommen.

Bei der Analyse und dem Vergleich der Online-Artikel zu COVID-19 in Deutschland und Korea hinsichtlich des Vokabulars zeigte sich der Unterschied, dass COVID-19 in Deutschland als feindseliges und in Südkorea als gefürchtetes Objekt angesehen wurde. Auch in den Artikeln zeigte sich ein diskriminierender Diskurs. In Deutschland wurden Asien und Asiaten diskriminiert, in Korea China und Chinesen. Die Bildung des COVID-19-Diskurses in den beiden Ländern ist auf der lexikalischen Ebene sichtbar, aber nicht vordergründig auf der grammatikalischen Ebene. Nichtsdestotrotz wurde bestätigt, dass es Raum für Unterschiede in den diskursgrammatischen Mustern in beiden Ländern gibt. Zunächst einmal wurde in deutschen Online-Artikeln bei der Bereitstellung von Informationen zu COVID-19 in vielen Fällen die Information an den Anfang und der Informationsanbieter an das Ende gestellt. Während es sich um eine Satzstruktur handelt, die die Charakteristika der deutschen Sprache widerspiegelt, in der die Wortstellung im Satz frei ist, erscheinen die im Satz als Objekte dienenden Informationen am Satzanfang und der Informationsgeber, der die Rolle des Subjekts hat, erscheint am Ende des Satzes. Es wurde festgestellt, dass der Schwerpunkt auf Informationalität gelegt wurde, indem Informationen im Zusammenhang mit COVID-19, und nicht Informationsanbieter betont wurden. Obwohl die koreanische Sprache, so wie die deutsche, eine freie Wortstellung hat, ist im Gegenteil dazu zu sehen, dass die

meisten Online-Artikel in Korea mehr Gewicht auf die Zuverlässigkeit von Informationen als auf die Informationen selbst legen, indem Informationsanbieter, d.h. Einzelpersonen oder Institutionen mit öffentlicher Glaubwürdigkeit, eher als Informationen am Anfang des Satzes gestellt werden. Hinzu kommt, dass in deutschen Online-Artikeln überwiegend das Agens offengelegt wird, während in Korea das Agens der Aktion in vielen Fällen unerwähnt bleibt. Deutsche Online-Artikel versuchen, die Objektivität von Informationen zu COVID-19 zu gewährleisten, indem sie den Urheber der Handlung offenlegen. Im Gegensatz dazu verallgemeinern koreanische Online-Artikel den Standpunkt, die Haltung und die Gefühle des Diskursproduzentes zum Thema COVID-19, indem sie das Agens der Aktion verbergt.

Der in Online-Artikeln in Deutschland und Korea aufgedeckte Unterschied im Diskurs zu COVID-19 zeigt die kulturellen Unterschiede zwischen den beiden Ländern. In der Analyse des COVID-19-Diskurses aus lexikalischer Sicht zeigt sich in Deutschland eine Feindseligkeit gegenüber COVID-19, während sich in Korea Angst zeigt. In Deutschland scheint eine aktive Reaktion erforderlich zu sein. Im Gegensatz zu in Deutschland impliziert man in Korea keine aktive Maßnahmen als Reaktion auf COVID-19, sondern bildet einen Diskurs, der die Ungewissheit, der so genannten neuen Infektionskrankheit, gehen lässt. Man kann sagen, dass dies das Ergebnis der Widerspiegelung des Unterschieds zwischen der deutschen Kultur der Aktivität und der koreanischen Kultur der Passivität als Reaktion auf COVID-19 ist. Zudem deckt sich der Unterschied in der Tendenz, den Inhalt zur Aktualität in der grammatischen Dimension an den Satzanfang zu stellen,

sozialstrukturell mit dem Unterschied zwischen Deutschland, das eine Bottom-up-Struktur hat, und Korea, das eine Top-down-Struktur besitzt. Deutschlands Bottom-up-Sozialstruktur legt Wert auf Individualismus, während Koreas Top-down-Sozialstruktur Wert auf Kollektivismus legt. Diese soziokulturellen Unterschiede zwischen in Deutschland und Korea erklären auch unterschiedlichen Reaktionen Deutschlands und Koreas auf staatliche Auflagen, wie Maskentragen und Impfungen. Die Zahl der COVID-19-Infektionen und Todesfälle in Deutschland und Korea zeigen einen deutlichen Unterschied. Die kulturellen Unterschiede zwischen Deutschland, einer individualistischen Gesellschaft, und Korea, einer kollektivistischen Gesellschaft sind in der grammatikalischen Struktur zu sehen, die den Diskurs von COVID-19 bildet.

Die Unterschiede in der Diskursbildung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und die durch sie feststellbaren kulturellen Differenzen geben Grund, mehrere Richtungen im Bereich Deutsch als Fremdsprache zu erwarten. Durch die Verwendung von Online-Artikeln als Unterrichts-materialien können Deutschlernende in Korea praxisbezogenes Deutsch in Bezug auf Wortschatz und Grammatik erfahren. Diese helfen Deutschlernende zum Lernen zu motivieren und tragen dazu bei, die hohen Einstiegshürden für Deutsch abzubauen. Werden zudem deutschsprachige Online-Artikel als Unterrichtsmaterialien verwendet, können Deutschlernende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in der deutschen und koreanischen Diskursbildung zum gleichen Thema entdecken und sich unterschiedliche Perspektiven zum gleiche Thema aneignen. Deutschlernende werden durch einen den Diskurs vergleichenden Unterricht mit einer anderen, als der bisher bekannten deutschen Kultur, konfrontiert. Dies ist für Deutschlernende hilfreich,

die tatsächliche Situation in Deutschland kennenzulernen und Deutsch zu lernen, indem sie sich die deutsche Kultur durch die Sprache aneignen, die den Diskurs ausmacht.

keywords : COVID-19, kritische Diskursanalyse, komparative studie, COVID-19 Diskurs zwischen in Deutschland und Korea, Vergleich der Diskursstr uktur, Sprachgebrauch im Diskurs

Student Number : 2017-29542